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8203.84	코스닥	891.52
	(-910.71)		(-76.88)
금리 (연이자율)	3.770	환율 (원/달러)	1537.15
	(-0.040)		(+0.15)

명품·약국 찾고
맛집 줄서고
명동 '핀포인트' 관광
03



원화 급락 했지만... 유동성 우려 제한적

고환율 뉴노멀 시대 ①1500원 웃도는 환율

저환율 시대(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저물고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채권·주식에 몰리는 돈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일반화되는 뉴노멀 시대가 예상된다. 고환율은 물가와 가계경제에 치명적이다. 고환율 시대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섰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외환보유액과 외채 구조, 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지표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달라 실제 외환위기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들어 19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21.4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월별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환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3월(1453.3원)보다도 약 70원 높다. 원화 실질 가치도 하락세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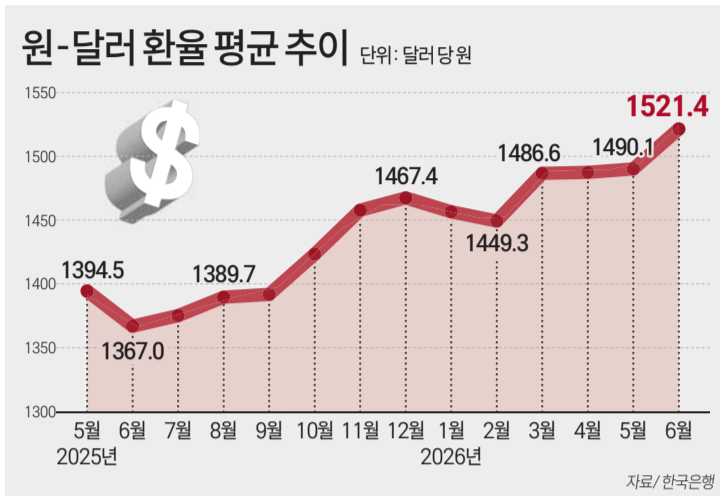
원화 가치 17년만에 최저치 '제2의 IMF' 거론 되지만 외환보유액 당시의 20배 '대외건전성은 경계 필요'

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의 5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84.75(2000년 수준=100)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79.31) 이후 17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다.

◆ 28년 만의 초고환율... 원화 가치 추락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기준금리를 3.50~3.75%



로 동결하면서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점도표(Dot plot)에서 중간값을 3.8%로 제시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9일 장중 101.123까지 뛰어 작년 5월 16일(101.256)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6일 장중 97.620으로 단기 저점을 찍은 뒤 점차 반등해 이달 17일 이후 100선을 넘어선 상태다.

주가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원화 약세를 계속 자극하

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20조2123억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만 20조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 '외환위기(IMF) 때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국내 대외 건전성 지표가 과거 위기 당시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순한 환율 급등이 아니라 외환보유액 부족, 단기외채 상환 압박,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경색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HBM4 누적매출 10억 달러 돌파 삼성전자, AI메모리 반격 신호탄

세계 첫 양산 4개월 성과 엔비디아·AMD 공급확대 HBM 시장선점 전략 마련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양산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탈환에 시동 걸었다. 업계에서는 HBM3E 시장에서 앞서 있는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익성, 장기공급계약 확보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가 출시 약 4개월 만에 누적매출 10억달러(약 1조5400억원)를 돌파했다.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나선 이후 빠른 공급 확대에 힘입어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 확대 속도를 감안할 때 이달 말 기준 누적매출이 12억달러(약 1조8500억원)를 넘어설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전자 HBM4는 코어 디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베이스다이에는 4나노 로직

공정을 적용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을 동시에 활용한 제품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11.7Gbps로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르며,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은 3.3TB/s에 달해 대규모 AI 연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선 모습이다. 지난 18일 전영현 부회장 주재로 열린 반도체(DS) 부문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는 고객사별 HBM3E를 비롯한 HBM4·HBM4E 공급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구글 등 주요 고객사를 겨냥한 공급 확대 전략과 수주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사업 안정성과 수요 가시성을 높이고,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 규모와 생산능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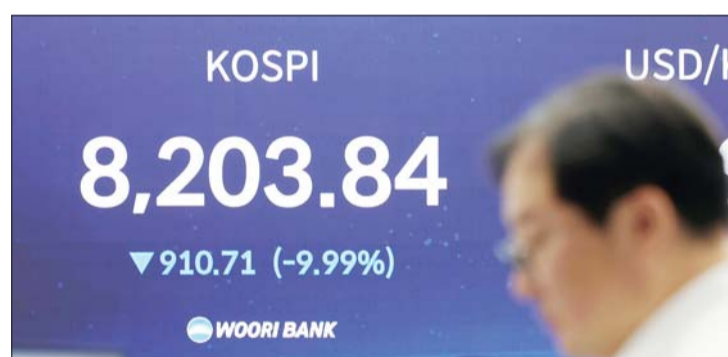


외국인 반도체 매물폭탄... 코스피 10% 폭락

거래소, 코스피 8203.84 마감 하루새 시가총액 743조 증발 31만 전자, 250만 닉스로 밀려

코스피가 '외국인 반도체 매물 폭탄'과 누적된 약재로 10% 가까이 급락하며 '검은화요일'을 맞았다. 연초 이후 100조원 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으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9% 내린 8203.84에 마감했다. 사상 최대 하락폭이다. 하루 만에 9000선과 8300선을 내렸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와 '셔킷브레이크' (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동반 발동했다. 이날 하루에 증발한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743조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9114.55)보다 910.71포인트(9.99%) 하락한 8203.84에 장을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달한다. 이 중 삼성전에서 사라진 돈이 531조원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도 7개월여 만에 900선이 무너지며 891.52에 마감했다.

특히 '9천피' (코스피 9000)를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1만 전자' (증가 31만원), '250만 닉스' (255만5000원)로 밀려났다. 삼성전기와 현대차도 각각 10.68%, 12.05%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날 3조3309억원을 포함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100조 8826억원 어치를 팔았다. 1539.1원(오후 3시 30분)까지 오른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외국인을 내몰았다.

지난달 27일 처음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의 수급 풀림도 시장에 충격

을 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 규모가 14조원을 돌파한 뒤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의 92%가 개인투자자'라며 '반대하지 못해 후회한다'고 했다. 특히 빛을 내 투자하거나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주식이 강제 청산을 당하거나 손실이 2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8조5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치다.

미국의 물가 불안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와 미국 거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에 대한 걱정,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불확실성도 '검은화요일'을 부추겼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국힘 중진·천하람·한동훈 한자리에... '선관위 확 뜯어고쳐야' /사진 뉴시스
- ▲국힘, 선거관리 개혁 6·3특위 출범... '부실·비리 얼룩 성역 깨고 재판 짜야'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흥정 대상 아냐... 합의 안 되면 표결해야"
- ▲종합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체포... '방첩사 블랙리스트' 조사

- ▲조국혁신당 신장식, "노무현 가치 훼손 시도 단호하게 맞설 것"
- ▲인사청문회 이틀 앞두고 한성숙 총리 후보자 소유 건물 불법증축 시설 철거

김정관 “성과급 노동쟁의 부적절... 석유최고가격 하향 검토”

(산업통상부 장관)

김 장관, 산업·통상현안 입장 피력
성과급 관련 투자자 보호 관점 제시
하반기 정책 'M.AX' 역량집중 방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영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 “성과급 쟁의는 법상의 공백”

현재 산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성과급이 파업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 쟁의화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발생하는 ‘법상의 공백’으로 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특히 김 장관은 투자자 보호 관점을 제시하며 재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뿐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하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라는 전제가 보장된다. 기본적인 위험도(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유최고가격제 신중론 유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운용 방향도 언급됐다. 정부가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은 제도 종료(엑시트)를 위해서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진입이라는 세 가지 전

제가 필요해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현재 두바이유가 70달러대라 해도 프리미엄이 붙어 실제 가격은 높지만, 종전에 비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낮출 이유는 있다”고 밝혀 가격 상한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 독일이 단독 선정되는 방안 외에 6대씩 나누는 방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시기가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배경과 연관돼 현지에서도 양분설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주 낙관론을 경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캐나다가 산업 협력 패키지보다 나토(NATO) 동맹국과의 결속을 비중 있게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물량이라도 수주하면 북미 시장 다원화 및 북극항로 등에서 캐나다와의 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하반기 제조업 AX 가속

최근 유럽 순방 성과로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46% 축소 기조 속에서 우리 물량(258만 톤)을 상당 부분 지켜낸 점을 꼽았다.

유통업계 현안인 새벽배송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간 상황에서 규제를 묶어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존의 규제 완화 포지션을 재확인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으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인 ‘M.AX(제조업 AX)’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이라며 “AI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여기에 올인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지역성장 전략인 ‘5극 3특’ 역시 권역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금리인상 전망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주택가격전망 CSI 120... 8p ↑

소비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주가 호조로 현재 경기 인식은 나아졌지만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전망은 제자리에 머물러, 부동산 기대를 안정시키면서 내수 충격을 줄여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금리수준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26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급등했다. 2016년 12월과 함께 종전 최대 상승 폭과 같은 수준이다. 지수는 2023년 10월 128 이후 가장 높았다.

향후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 CSI도 120으로 8p 올랐다. 금리와 주택가격 지수의 전망 기간이 서로 달라 단 순히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함께 강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소비자의 집값 기대가 높아진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7%, 수도권은 0.20% 올랐다. 경기지역 상승률도 0.21%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역시 서울이 0.30%, 수도권이 0.21%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보다 당장의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이 소비자의 가격 전망에 더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여전히 낮지 않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p 내려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기준금리 2.50%보다는 1.81%p 높은 수준이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전망이 다시 상승할 경우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 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리와 집값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가계별로 다른 부담을 준다. 대출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는 자산가치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무주택자는 집값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함께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p 올라 2개월 연속 개선됐다. 다만 5월 6.9p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개선 폭은 크게 줄었다.

세부 지표에서도 경기 회복이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으로 현재경기판단CSI는 86으로 3p 올랐지만, 향후경기전망CSI는 대출금리 상승세와 높아진 주가 수준에 대한 우려로 1p 내린 92를 기록했다.

생활환경전망CSI는 97,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자출전망CSI는 110으로 모두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저축과 가계저축전망CSI도 각각 1p 하락했다.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아졌지만 소득·소비·저축 등 실제 가계 형편에 대한 기대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과 같았고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0.1%p 올랐다.

이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금리수준전망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 확대와 주가 상승, 정보기술(IT) 부문 성과급 지급도 주택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마무리

오프라인 유통시장 본격 진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마무리하며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23일 NS홈쇼핑은 전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인수대금 1200억원을 완납하고 영업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하림그룹 식품사업과 유통망을 결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NS홈쇼핑이 100% 출자해 설립한 신설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을 운영한다. 신설법인은 조직 정비와 경력직 채용, 본사 사무공간 구축을 마치고 운영 준비를 끝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점포 수 기준 업계 3위로, 1위 GS더프레시는 300개 이상, 2위 롯데슈퍼와는 약 50개 차이가 난다. SSM 사업은 점포 수와 물류망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다.



NS홈쇼핑 판교 본사에 걸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인. /뉴시스

사업 방향성도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가 신설법인 대표를 겸임하고 법인 목적에 교육·여행·광고·보험대리점업 등을 추가했지만, 이를 기존 슈퍼마켓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NS홈쇼핑이 공급망 정상화 이후 점포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상업적 합리성 기반 현미경 검증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미 전략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검토할 법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정식 출범했다. 앞으로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으로서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현미경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0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써 그간 가동돼 온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투자 검토 업무를 공식적으로 승계하게 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임시 체계에서 다뤄온 대미투자 후보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투자 성공의 최우선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에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지금 시장 상황, 외환위기 때와 완전히 달라”

▶▶ 1면 ‘원화 급락 했지만...’서 계속

지난 5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0억 달러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 204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지난해 외화LCR은 평균 188%로 규제수준(80%)을 상회한다.

다만 일부 대외건전성 지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외채 규모와 비중이 확대된 데다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여전히 때문이다.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릴 수 있지만 당시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도 강화돼 과거와 같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지우 기자 ysl15@

명품·약국 찾고, 맛집 즐서고... 명동 '핀포인트 관광' 뜬다

크로포 평일 낮 명동거리 가보니

외국인 몰리며 명동 상권 활기 명품·약국·맛집 중심 소비 확산 5월 외국인 카드지출 첫 2조원 중국인 소비 214%·약국 206% ↑ 즉시환급 확대, 결제 인프라 과제



오후 2시 명동 거리. /박경수 수습기자

지난 18일 낮.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고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말소리가 가득한 거리. 평일 낮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서울 명동 한복판은 이미 글로벌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과거의 획일적인 단체 쇼핑 투어는 사라졌지만, 삼삼오오 목적이 명확한 '핀포인트(Pin-point) 관광'의 거점으로 완벽히 재편된 모습이다.

롯데백화점 본점 1층 명품관에 들어서자마자 매장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들어왔다. 현장에서 만난 보안 직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외국인 고객들의 오픈런 행렬이 일상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금 환급(텍스리펀)

데스크의 한산함이었다. 기존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모아 백화점 내 전용 데스크나 공항 출국장에서 줄을 서서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가 매장에서 즉시 세금을 깎아주는 '즉시 환급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명품관이나 매장 결제대에서 외국인 여권을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바로 결제된다. 따로 세금 환급 데스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백화점 곳곳에 무인 키오스크(KIOSK)가 설치된 데다, 스마트폰 앱

으로 영수증을 스캔해 모바일로 즉시 환급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투이비통, 샤넬, 디올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고객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수 진척의 정체기를 겪던 국내 백화점 명품 매출이 외국인 수요라는 확실한 견인차를 만나 다시 반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명동 상권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곳은 다름 아닌 약국이다. 이제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처방 공간이 아닌, 필수

관광 코스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 방문한 명동 일대 약국들은 이미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매장 전면에는 중국어·일본어·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파스, 소화제, 기능성 마스크팩 등이 전용 매대에 큐레이션 되어 있었다.

현장의 김 모 약사(30대)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고객의 대량 구매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K-약국'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실생활 밀착형 제품을 소비하는 새로운 '소비형 관광'의 핵심 지표로 주목하는 이유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지출액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214% 이상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쇼핑, 이동, 의료·웰니스, 식음료 소비가 고르게 늘었다. 쇼핑업은 전년 동월 대비 77.8% 증가했고 운송업은 70.6%, 의료·웰니스업은 65.8%, 식음료업은 64.9% 늘었다. 세

부 업종에서는 약국 소비가 206.1%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각각 89.2%, 87.6% 증가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3시, 인근의 유명 노포 '명동교자' 앞에는 여전히 긴 대기 줄이 늘어선 모습이었다. 대기 고객의 대다수는 외국인이었다. 선불제로 운영되는 이곳 계산대 앞에서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현금 결제 가능 여부를 두고 직원과 소통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국의 외식·유통 업체가 카드와 모바일 결제 중심으로 초고속 전환된 반면, 여전히 현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명동 상권은 부활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만 치우쳤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외국인 소비는 '럭셔리, 웰니스, 미식'이라는 명확한 타겟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그늘에서 당황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처럼 소비의 질을 뒷받침할 세심한 인프라 보완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현진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호남 팍' 부상에 삼성·SK 고심... "수십조·인력·용수 난제"

후공정서 전공정 유치론 확산 신규 팍 조성에 5년 이상 소요 협력사 생태계·전력 확보 변수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 논의가 패키징 등 후공정을 넘어 전공정 팍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후공정은 지방 배치가 가능하지만 전공정은 수십조원 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협력사 생태계, 전력·공급용수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기업들은 수익성과 생산 효율,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영현 삼성 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광노정 SK하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울산전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닉스 대표이사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다음 달 2일에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이 충남 아산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인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규모와 입지, 공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전공정과 후공정의 비대칭성을 꼽는다.

정부 구상 초기에 호남은 후공정 거점으로 거론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첨단 패키징)·부산(전력반도체)·구미(소재·부품)로 있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공정 시설까지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후공정은 입지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짓기로 한 것도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공급망을 두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광주에는 글로벌 후공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가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호남도 후공정 거점으로는 적합하다는 평가

를 받는다.

반면 전공정은 차원이 다르다. 웨이퍼 제조와 증착·식각 등이 이뤄지는 전공정 팍은 공장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에 가깝다. 우선 투자 규모가 부담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용인 클러스터 1기 팍 건설에 21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공시했다. 2024년 7월 발표분 9조4000억원을 더하면 1기 팍에만 약 31조원이 투입된다. 인디애나 후공정 공장 투자액의 약 6배 수준이다.

건설 기간도 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2일 대만 컴퓨텍스 2026에서 "새 팍은 최소 3년, 맨땅에서 시작하면 5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기존 단지에 증설할 때의 분석으로 부지부터 새로 닦아야 하는 호남 전공정 팍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메모리 호황으로 증설 속도가 관건인 만큼, 여기에 용수

와 협력사 확보까지 더해지면 적기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까지 약 5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다. 박사급 연구개발(R&D)·생산기술 인력이 팍·화성·이천에 집중된 만큼, 호남 신설 팍은 인력을 새로 확보하거나 이주시켜야 한다.

협력사 이전도 난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변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밀집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공정 팍을 호남에 지으려면 이들 협력사도 함께 옮겨가거나 새로 투자해야 한다.

그럼에도 양사가 지방 투자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균형발전 전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AI 반도체 이벤트 몰린 이번주... 빅3 주도권 분수령

마이크론 실적, 메모리 업황 가늠자 SK하이닉스, ADR 상장 심사 막바지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

이번 주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향방을 가늠 변수가 잇따르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빅3'의 주도권 경쟁이 분수령을 맞았다. 마이크론의 실적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 증서(ADR) 상장 심사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매출 성과를 앞세워 인공지능(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주도권 확보 희망을 키우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와 투자업계에 따라

면 마이크론은 24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2026 회계연도 3분기(3~5월)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이번 발표를 메모리 업황의 첫 번복점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가 추산한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약 3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진이 제시한 매출총이익률 전망치 81% 달성 여부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의 지속성을 가늠 지표로 주목된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심사도 막바지 단계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24일 미국 SEC에 ADR 상장을 위한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 제출했고, 씨티증권과 JP모건·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SEC가 특정 날짜에

승인을 내주는 구조가 아니라 제출 서류에 대한 질의응답을 반복하는 방식"이라며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승인이 마무리되면 이른 7월 중순에서 말 사이 나스닥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매출 성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지 약 130일 만에 업계 처음으로 누적 매출 10억 달러(약 1조5400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면 출시 첫해인 2026년에만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남영 기자 metro

삼성, 1c D램 수율 연말 85%로 상향

>> 1면 'HBM4 누적매출...'서 계속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과 수율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단 공정 수율 안정화 여부가 향후 수익성 확보와 공급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2나노 게이트를 아라운드(GAA) 공정 수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성숙 공정에서는 6세대 HBM4 베이스다이와 엔비디아 그록 칩, 닌텐도 스위치 2프로세서 생산 등이 본격화되면서 가동률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회사는 연말까지 1c D램 수율 목표를 기존

60%에서 85%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전해져 수율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율은 그동안 삼성전자 HBM 사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HBM3E 초기 단계에서도 수율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에 시장 선두 자리를 내주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용 베이스다이 생산 과정에서 외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협력하고 있다. TSMC가 첨단 로직 공정과 패키징을 담당하면, SK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연산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HBM을 공급하는 구조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조선·전력·엔진 호황 넘어 자동화부터 로봇 도입까지 AI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

10 HD현대



HD현대가 조선·전력·엔진 사업 호황을 기반으로 AI 시대 산업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기회로 전력 공급, 발전, 냉각, 차세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아우르는 AI 인프라 밸류체인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세워 제조 혁신도 추진 중이다.

1분기 매출 19.6조, 영업이익 2.8조 전년비 각각 14.7%, 120.4% 늘어 선박건조, 전력변압기 실적 견인

HD현대일렉트릭

美 대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 노르웨이, 덴마크 등 시장 확대

HD현대중공업

美 AEG와 발전설비 공급계약

HD현대오일뱅크

서울대와 AIDC 액침냉각 실증 네이버클라우드에 액침냉각액 공급

HD현대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조6019억원, 영업이익 2조834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20.4%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14.5%로 상승했다. HD한국 조선해양의 고선가 선박 건조 확대와 HD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전력변압기 호황이 실적을 이끌었고, 엔진·선박 애프터마켓·정유·건설기계 회복세도 더해졌다. 확보한 재무 체력은 AI 인프라 시장 확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전력·냉각·부지…AI 데이터센터 병목 해결 나선 HD현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2030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경쟁이 반도체 확보를 넘어 전력 공급과 냉각, 데이터센터 입지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인프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HD현대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전력 생산부터 송배전, 냉각, 차세대 데이터센터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영역은 전력기기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전력망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변압기와 차단기 등 핵심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100MVA 이상 대형 변압기 시장에서 약 25%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르웨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센터용 전력기 자체 공급 협력 MOU를 체결했다. 덴마크 국영 송전망 운영사 에네르기넷과도 400억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전력 생산 분야에서는 발전엔진과 연료전지, 태양광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힘센엔진은 지난 4월 미국 에이페리온 에너지 그룹(AEG)과 684MW·6271억원 규모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용 엔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HD하이드로젠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특히 SOFC는 전력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TTP)이 약 18개월로 가스터빈(60개월), 가스엔진(36개월)보다 짧아 데이터센터용 분산전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의 핵심인 냉각 시장에도 진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서울대와 AI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엑스티어 E-쿨링 플루이드'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에 액침냉각액을 공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형태 자체 변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HD현대는 조선·해양플랜트 기술과 발전설비, 전력기기 역량을 결합해 부유식 데이터센터(FDC)를 미래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육상 데이터센터의 부지·전력·냉각 제약이 심화될수록 바다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과 전력, 발전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HD현대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다양한 전력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며 "HD현대는 발전설비와 SOFC, 해양엔지니어링 역량을 모두 보유해 육상 데이터센터는 물론 향후 FDC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 역량 결합해 부유식 데이터센터 미래사업 검토 미래첨단 조선소 프로젝트 통해 생산성 향상, 건조기간 단축 목표

HD현대삼호

용접 로봇으로 일일 작업량 늘려 리그 자율 제조 공정으로 자동화 4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박차

◆ 디지털트윈·휴머노이드…생산방식 혁신

HD현대의 AI 전략은 생산 현장 혁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숙련공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 납기 준수 여부가 수익성과 직결되는 산업이다. 인도 지연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조기 인도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과 건조 기간 단축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HD현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기반 생산 체계를 생산 혁신의 두뇌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지멘스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전 공정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 30% 향상과 건조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와 만나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양사는 그룹 전반에 AI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센터 오브 엑셀런스(CoE)' 구축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트윈이 생산 공정의 병목과 리스크를 예측·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로봇과 자동화 설비는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행 수단이다. HD현대삼호는 용접 로봇을 도입해 일일 작업량을 기존 25~30셀에서 45~50셀 수준으로 늘렸고, HD현대중공업은 절단·조립·용접을 통합한 '리그 자율 제조 공정'을 운영하며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화를 넘어 휴머노이드 도입에도 나섰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로보틱스, 독일 노이라 로보틱스는 조선소 특유의 고온·고습, 협소한 비정형 작업 환경에 투입할 4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HD현대로보틱스, HD한국조선해양은 LG CNS와 AI 기반 휴머노이드와 자율이동로봇(AMR)을 활용한 조선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metroseoul.co.kr metro

현대중공업 조선소 야드. /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인 Aperion Energy Group(AEG)과 20MW급 힘센엔진(HIMSEN) 기반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한주석 HD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 아론 휠러(Aaron Wheeler) AEG 최고경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액침냉각설비에 담긴 냉각유와 서버를 테스트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지난해 7월 독일 뮌헨에서 HD현대삼호, HD현대로보틱스, 노이라 로보틱스가 '조선산업 인숍(In-shop) 4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및 실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HD현대로보틱스 송영훈 솔루션 부문장, 노이라 로보틱스 데이비드 레거 CEO, HD현대삼호 류상훈 자동화혁신센터 담당임원. /HD현대삼호





진짜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도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더 멀리 나아갈 태극전사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을



AX Platform Company kt

선관위 증인 대거 불출석... 여야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

국조특위에 선관위 비상임위원 불출석 노태약 전 위원장 “책임 통감” 사과 여야 “납득 어려워” 출석 재차 요구

여야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날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송과구 선관위 10명도 불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노태약 증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노태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 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

겠다고 답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약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을 두고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7명이 왜 다 안 나온 것인지 물은 건데 답변이 왜 이런가”라며 질타했다.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그분들 중에 비상임위원 7명이 그대로 안 나왔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

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에 회의에 불참한 증인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고, 위 상임위원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약 전 위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 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종합관리 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철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철환 전 사무총장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허 전 총장은 지침 변경에 대해선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코스피 상승, 탄 세상 이야기”... 청년 소외감 지적

청년세대 자산 양극화 해소 강조 선관위 철저한 수사·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성장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우려하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탄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석유최고가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격 상한은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하면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들이 질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주요 7개국(G7) 참석차 유럽 순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평가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 이상적인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청년세대의 양극화를 꼽았다. 2030세대가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집안 환경이나 대·중소기업 취업 여부 등으로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및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이런 가운데 청년세대의 소외감을 짚은 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2030 표심이 일부 돌아섰다는 분석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석유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

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잡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일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지목했다.

이에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안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앙선관위 내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외유성 출장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장 사수”... 원 구성 협상 결렬 땀 표결

여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도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원 구성 안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24일 오전 중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반이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일당 심판,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통한 민생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이 인정하는 성과를 올렸다”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면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두고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의석 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원구성 절차에 협조하라”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24일 정오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차질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이 이달 내 마무리 안 되면 국회는 정기회 회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고, 민주당에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인데, 이것이 가능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건인가”라며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했다”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더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급주 내 원구성이 마무리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현재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본

회의 부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상임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부위 위원장직을 탈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만약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에게 “첫 관문이자 양당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배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주요 경제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여야 간) 팽팽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KDB생명 인수 5파전... '자본보강' 여부가 승부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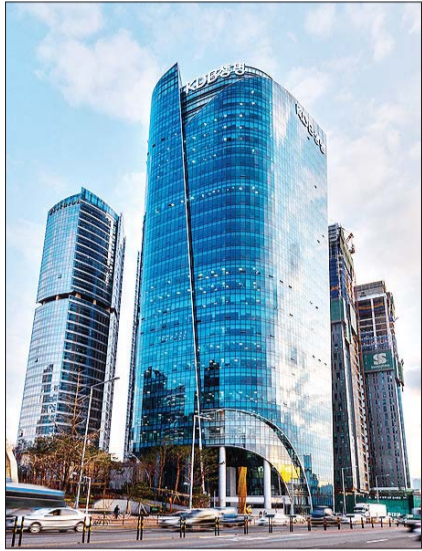
삼성·한화·교보·한투·태광 참여 예비입찰 5곳 적격 인수후보 선정 KDB, 킷스비율 186% 기준 웃돌아 새 주주, 자본 높일 장기계획 필요

KDB생명 인수전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한국투자금융지주·태광그룹 등 5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입찰은 흥행했지만 실제 본입찰 완주 여부는 산업은행에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뿐 아니라 인수 이후 감당해야 할 자본보강과 경영 정상화 비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초 예비입찰에 참여한 5곳을 모두 적격인수후보로 선정했다. 후보들은 현재 KDB생명의 보험부채와 보유계약, 자산운용 현황 등을 살피는 실사를 진행 중이다.

◆ 5000억 넣었지만 기본자본은 41.9% 이번 인수전의 핵심은 KDB생명의 '자본의 양과 자본의 질'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다. 올해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제도(K-ICS·킷스) 비율은 186.1%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웃돌았다. 반면 경과조치를 제외한 킷스 비율은 74.5%에 그쳤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기본자본비율은 경과조치 후에도 41.9%였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으면 -25.2%다. 기본자본도 경과조치 후에는 4108억원이지만 이를



KDB생명 매각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 사옥. /KDB생명

제한하면 -3567억원으로 마이너스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KDB생명에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순자산과 전체 킷스비율을 끌어 올렸지만 투입액이 모두 기본자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분기 경과조치 전 순자산은 6356억원으로 늘었으나 기본자본에서 제외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된 항목도 992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7520억원을 차지했다. 금리 상승으로 시가평가한 보험부채와 원가 기준 해약환급금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서 순자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기본자본으

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원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에도 손통이 트였다"며 "유상증자 이후에도 보험영업 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 가격표는 '주식값+자본보강+정상화'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킷스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한다. 50%를 밑돈다고 즉시 적기조정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다. 2027년 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적용하는 경과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새 주주는 금리와 환율, 보험부채 변동을 고려해 기본자본을 지속적으로 높일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확대에 따라 요구자본이 늘면 필요한 자본도 달라질 수 있어 외부 공시만으로 추가 투입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KDB생명의 영업 기반은 인수 매력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보유계약 가운데 보장성보험 비중도 75%를 웃돈다. 반면 지난해에는 1119억원의 손실실을 기록한 만큼 최근 실적 반등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이어질지는 실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KDB생명은 매각 절차와 별개로 자체적인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

장이다. 김병철 대표 취임 이후 방카슈랑스와 전속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모든 영업채널을 기반으로 영업력을 회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인수 후보가 계산할 실제 가격은 ▲산업은행에 지급하는 주식 인수대금에 기본자본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품과 영업채널·자산부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정상화 비용을 더해야 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기존 영업망과 상품·자산운용 부문의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KDB생명의 요구자본까지 그룹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태광그룹은 보험사업 진출 확대라는 전략적 효과가 큰 대신 운영체계 정비와 자본관리 부담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의 추가 자본 투입 여부와 인수가격 조정, 인수자의 신주 투자 병행 등이 원매주의 총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추가 자본확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KDB생명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회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현재는 매각 절차와 별개로 보험영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등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대우건설 美-이란 종전 합의 '중동재건 TF' 구성

대우건설은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재건·개발 투자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동재건 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해외영업을 총괄하는 글로벌 법인프라분부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건축 등 사업본부의 해외 개발사업 및 수주 영업 기능을 아우르는 협업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진출 경험이 있는 중동국가 피해국의 인프라 복구 공사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시장 재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이란에서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아화즈 발전소,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향후 '중동재건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해외건설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동 재건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사업 정보 수집에도 합력 예정이다. 특히 국내 주요 건설사 간 팀 코리아(Team Korea) 협업 구도 구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 장애인 사회진출 지원 취업교육·고용연계 사업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 지원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60명 ▲청각 장애인 15명 ▲경계선 지능인 10명 등 총 85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계선 지능인까지 확대하고 3가지 신규 직무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를 통해 청년 장애인의 직무 선택의 폭과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상호금융, 포용금융 드라이브... 하반기 대출 확대

새마을금고, 5년간 1000억 출연 신보 보증서 담보 1.1조 대출 취급

상호금융권이 포용 금융에 드라이브를 건다. 하반기 중 포용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중장기적인 자금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은 올해 하반기 포용 금융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에 발맞춰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내달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중앙회가 5년간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대출 100%를 보증한다. 지역 금고는 신용보증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총 1조 1000억원 대출을 취급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가치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환원 등을 연결해 일자리·복지·공동체 활동 등 추가적인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금융 본부를 신설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증부 상품 출시 외에도 대출 지원·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도 이르면 시일 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

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다. 그간 신협법 내에는 개별 신협이 대출 사업을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협법을 개정한다.

이 외에도 신협은 오는 10월 비대면(온뱅크)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금융권 수준의 금리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포용 금융 정책 강화 기조가 꼽힌다. 최근 금융위는 지난 4월 출범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포용 금융전략추진단 소분과로 편입했다. 조직 체계를 확대해 상호금

용 포용 금융 역할 강화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사회연대경제 조직 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는 오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용보증 보증 한도를 최대 3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금융권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상호금융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포용 금융 관련 예산을 확대·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범농협 차원의 포용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5년 간 총 15조 3000억원 규모의 포용 금융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호 '왕속 아테라' 최고경쟁률 393.6대 1

223가구 모집에 2.3만명 몰려

3기 신도시 왕속2지구 첫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에 달하면서 흥행이 예고됐다.

23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속2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아파트 왕속아테라는 지난달 진행된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223가구 모집에 총 2만3525명이 신청했다. 청약경쟁률은 평균 105.5대 1이며, 최고 경쟁률은 393.6대 1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31

가구 모집에 1만4001명이 신청해 평균 1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왕속 아테라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73가구 ▲84㎡ 201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양주 왕속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약 1만60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으며,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다산신도시, 왕속1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지와 인접했다.



경기 남양주 왕속2지구 '왕속 아테라' 투시도. /금호건설

왕속 아테라는 왕속2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분양관계자는 "왕속아테라는 왕속2지구 첫 공급 단지에 가격 경쟁력과 입지 여

건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금호건설의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된 만큼 향후 지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교통 인프라로는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946억(가칭, 예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예정 노선과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1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안성-포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왕속2-다산 연결도로도 예정돼 있다.

정당계약은 8월 10~14일 진행된다. 기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경영권 분쟁에도 흔들림 없는 성장... 美 11조 투자 승부수

K-산업 돋보기

● 고려아연 '새로운 도약'

세계 비철금속 글로벌 1위 기업 고려아연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초일류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흔들림 없는 경영 의지와 내부 구성원들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제조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파격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의 이같은 전략이 빛날지 아니면 빛으로 남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성장동력인 최윤범 회장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미래 비전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 첨단산업 분야 핵심광물 포트폴리오 확장

고려아연은 MBK·영풍연합과 2022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없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MBK·영풍연합은 고려아연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실적과 재무 상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신사업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앞줄 가운데)이 미국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제련소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트로이카 드라이브' 구상 제련업 넘어 미래 성장동력 모색 비철금속 제련소 등 대규모 투자 글로벌 초일류 소재 기업 체질개선

순항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구리 등 기초금속 뿐만 아니라 금·은 등 귀금속과 안티모니·인듐 등 핵심광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투자를 집중했다. 시장 여황에 좌우되지 않는 체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이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

젝트 크루서블'에 미국 정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고려아연이 테네시 제련소에서 생산할 핵심 품목은 총 13종이다. 이 중 11개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이다.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필수 소재들이다. 구체적으로 아연, 연, 구리 등은 자동차·건설·전자·가전·배터리 부품 기초 소재로 사용된다. 안티모니, 게르마늄, 갈륨, 인듐, 비스무트 등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 소재다. 금, 은, 팔라듐, 텔루륨은 정밀 전자 부품 및 차세대 태양광 패널에 쓰인다. 기존 투자를 통해 키워온 신사업도 성

과를 기록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을 축으로 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 '트로이카 드라이브' 성과 가시화

최윤범 회장이 이끌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구상은 호주 지회사 SMC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에서부터 시작됐다. 2014년 SMC 사장으로 부임한 최 회장은 당면 과제인 적자 해소부터 업(業)의 특성상 부과되는 전력 소비량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전략을 추진했다. 비용 절감은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발전을 이끌어냈다. 만성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데 이어 2018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친환경 경영으로 건설된 SMC 태양광발전소는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첫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SMC는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사용전력 2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대형 제련소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면서 오는 2040년까지 필요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선언했다. SMC가 위치한 호주는 고

려아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의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에 거점 역할을 한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최윤범 회장이 2022년 취임한 이후 채택한 미래 성장 전략이다. 이같은 투자 성과가 발현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4년 걸린다는 점에서 2025년 상반기 신사업 실적을 통해 고려아연은 성과를 검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매출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 수준까지 확대됐다. 특히 자원순환을 맡고 있는 미국의 지회사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720억원, 영업이익 74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4%, 영업이익은 175.2%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련업만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제련소 등의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S일렉, 신뢰·상생 기반 북미사업 고도화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사업 후원 채용 등 지역사회 연결고리 강화

"위대한 기업은 뛰어난 역량으로 세울 수 있지만, 세대를 잇는 신뢰는 진심으로만 쌓을 수 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땀 흘린 유타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미국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이 언급한 신뢰의 출발점은 75년 전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 가평에서 벌어진 전투다. 당시 유타주 출신 청년 장병 240명은 약 4000명 규모의 중공군 공세를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막아내며 '가평의 기적'으로 불리는 승전을 이끌었다. LS일렉트릭은 2022년 미국 유타주 시더시티에 위치한 LS일렉트릭 유타를 인



수한 뒤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 구 회장은 이 과정에서 가평 전투의 역사를 접하고 사업 경쟁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대와 지역사회 신뢰가 미국 시장 안착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LS일렉트릭 유타가 자리한 시더시티 일대에는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들이 남아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도 한국전쟁의 기억이 이어지고 있다. 구 회장은 이 같은 유대를 LS일렉트릭의 북미 사업 기반이 되는 유타 지역사회와 한국을 잇는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서던유타대학의 한국전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후원했다. 생존 참전용사들이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가평 전투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으며, 시더시티 현지에 조성된 한국전쟁 메모리얼 파크

유지·관리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구 회장은 "가평의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은 기업의 마땅한 책무이며 이러한 굳건한 신뢰 위에 쌓아 올린 현지 사업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유타 법인을 북미 전력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지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관계를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현지 인재 육성과 채용 기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서던유타대학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시설 건립에 참여해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주한미군 채용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도 참여해 한국과 연결고리를 가진 현지 우수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화학, 반도체 분야 등 R&D 15조 투입

고성장 산업 중심 수익구조 전환

LG화학이 전통 화학 중심의 수익 구조를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 등 고부가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사업 조직을 통해 실행 속도를 높여 2030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달성을 추진한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22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와 항암 신약을 핵심 육성 사업으로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을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전통 화학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LG화학은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고객 기반을 앞세운 고부가 사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2035년까지 R&D에 총 15조원을 투자한다. R&D 자원의 약 70%는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등 육성 사업에 배분한다. 인공지능(AI) 기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22일 타운홀 미팅에서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핵심 사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LG화학

반 신규 응용 분야와 선도 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조달 가능한 자원 범위 안에서 인수합병(M&A) 등 외부 성장 전략도 병행한다. 자체 기술 개발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사업 확대 속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LG화학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모빌리티·로봇 소재, 항암 신약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축에 역량을 집중해 기술이 강한 컨버팅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UFS 5.0 메모리 솔루션 개발

온디바이스 AI 관련 인프라 선점 속도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모바일 스토리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업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UFS 5.0 메모리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반도체 표준화 기구 'JED EC'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5.0'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UFS 5.0은 삼

성전자의 첨단 9세대 V낸드(V9) 기반으로 개발돼 업계 최고 수준인 10.8GB/s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했다. 삼성전자는 UFS 5.0은 순차 읽기 속도 10.8GB/s, 순차 쓰기 속도 9.5GB/s를 지원해, 기존 UFS 4.1 대비 약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저장·처리할 수 있다. 특히 AI 응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돼,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보다 빠른 응답 속도의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UFS 5.0을 가로 7.5mm, 세로 13mm, 높이 0.9mm로 전작 대비 16.7% 작아진 패키지를 구현해 ▲모바일 ▲웨어러블 ▲확장현실(XR) 기기 등의 설계 유연성과 공간 활용성도 높이며, 최대 1TB 용량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부터 UFS 5.0 양산을 시작하여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플래그십 스마트폰 뿐 아니라 XR 헤드셋, AI 웨어러블 등 차세대 디바이스 시장 성장에 맞춰 UFS 5.0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인터, 5억달러 규모 글로벌 본드 발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해외 자본 시장 조달 기반을 확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모집액의 4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단일 트랜치로

발행됐으며 발행금리는 5년 미국 국채금리에 90bp를 더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총 주문 규모는 발행액의 4배인 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시금리(IPG)보다 30bp 낮은 수준에서 최종 발행이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외화 차입금 상황과 일반 운영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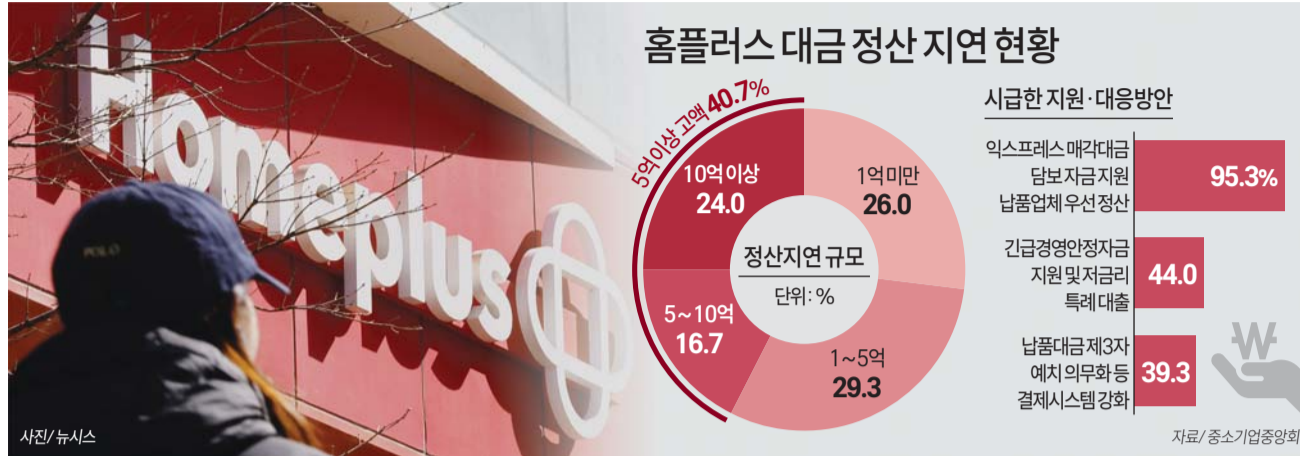
소상공인 2면

홈플러스 납품사 60여곳 미수금 5억 이상... 평균 8억 못받아

중기중앙회, 150곳 정산 조사
98% "납품 60일 지나도 못받아"
10곳 중 8곳 경영난, 자재비·임금난
79.3% "긴급자금·우선정산 필요"
"정상화 위해 납품사 생존 우선"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받지 못한 돈이 평균 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받은 돈이 5억원 이상인 곳도 60곳이 넘었다. 10곳 중 8곳은 납품대금 미수령으로 어려움이 큰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와의 거래에서 현재까지 정산이 지연된 납품 대금은 4



단값(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원으로 조사됐다. 받지 못한 돈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9.3%로 가장 많은 가운데 ▲1억원 미만(26%) ▲10억원 이상(2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6.7%) 순이었다. 이 중 40.7%는 5억원

이상이었다. 미정산 금액도 상당하지만 법정 지급기한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응답업체의 98%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납품업체의 76.7%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꼽힌 어려움 1순위는 '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62.7%)'이었다.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필수 운영자금 부족(19.3%)'이나 '인건비 지급 지연 및 인력 이탈 위기(14.0%)'를 겪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이 낮을수록 인건비 지급 지연이나 인력 이탈 위기를 겪는 업체가 비중이 높았다.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대주단(메리츠금융그룹 등)의 자금(대출) 지원 및 납품업체 우선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게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DIP) 집행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담보돼야 홈플러스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이번 홈플러스 경영 위기에 일말의 책임도 없는 이들 기업의 생존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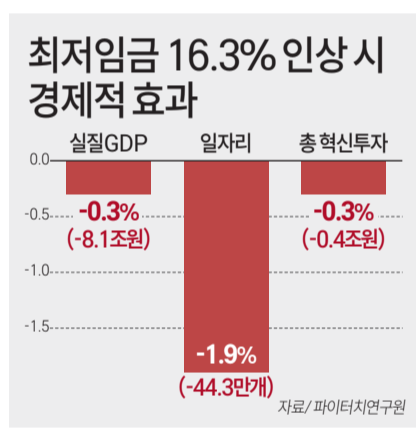
metro

“내년 최저임금 16.3% 오르면, 일자리 44만3000개 감소”

파이터치리,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실질GDP 8.1조·혁신투자 4000억↓
“과도한 인상 요구, 경제에 악영향”
자영업자 44% “최저임금 동결”
4명 중 1명 “이미 폐업 한계 상황”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대로 16.3% 올릴 경우 소상공인 등 일자리 44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일 반균형모형을 적용해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를 분석한 것으로, 이는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경제문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받았다. 23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6.3% 인상하면 실질국내총

생산(실질GDP)은 0.3%(약 8조1000억원), 일자리는 1.9%(약 44만3000개), 총 혁신투자는 0.3%(약 4000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노동수요량, 즉 일자리와 생산량이 줄어든다”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신상품 개발 등 혁신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는 일반기업의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올리면 연간 실질GDP(약 2조6000

억원), 일자리(약 15만1000개), 총혁신 투자(약 1000억원) 모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10%라면 연간 실질GDP, 일자리, 총혁신투자가 각각 5조1000억원, 28만8000개, 2000억원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라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5%로 이미 높은 수준”이라면서 “과도한 인 상요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걱정 인 상률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4.6%가 '동결'을 답했다. ▲1~3% 미만(20.6%) ▲인하(13%) ▲3~6% 미만(12.6%) 순이었다. 또 폐업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명 중 1명(25.2%)이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2%가 각각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metro

매년 12월 첫째 주 '벤처기업 주간' 지정

중기부,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개인조합 상장사 투자한도 2배

매년 12월 첫째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업계 성과를 재조명한다.

벤처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 제도도 개편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상한을 2배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기준도 재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

창업기획자가 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유무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 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넓힌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투자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한다. 대기 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 C)과 파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집

단으로 포함될 경우 파투자기업 지분 처 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업종'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으로 전환한다. 현장 혼선 방지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유무 규정을 없애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손본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늘어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부 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한다. 또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를 이관해 전문성을 키운다.

/김승호 기자

삼양이노켄, 바이오 소재 LNG 단열재 개발

HD현대중공업 등 3사 공동개발
열효율·내구성 높여 선박시장 공략

삼양이노켄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개발에 나선다.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소소르비드를 적용해 단열재의 열효율과 내구성, 난연성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소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이노켄은 지난 22일 서울 중로구 삼양그룹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 미래고분자연구와 '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공동 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양이노켄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이소소르비드 공급과 관련 물질 데이터를 제공한다. HD현대중공업은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차세대 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시제품 개발과 물질 평가, 최종 제품 양산화를 맡는다. 미래고분자연구는 단열재 배합비와 공정 최적화 솔루션 설계를 지원한다.

LNG 저장탱크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180도 이상 발생해 열전도율이 낮고 내구성이 높은 단열재가 필요하다. 최근

조선업계에서는 원유 공급망 리스크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기존 석유화학 기반 단열재를 대체할 특수 소재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다. 기존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로 단열재에 적용하면 열효율과 내구성, 난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양이노켄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도로, 전기차용 모터코어 접착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원료 생산부터 기술 최적화, 최종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삼양이노켄의 이소소르비드 생산 역량, HD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저장탱크 기술, 미래고분자연구의 폴리우레탄 소재 설계 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단열재 시장 선점을 노린다.

류훈 삼양이노켄 사업PU장은 “이번 협약의 목표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단열재의 강도와 단열 효율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소진공

'만땅맥주' 동네슈퍼 공급

개당 1700원, 전국 3만곳 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당 1700원 짜리 '만땅맥주'를 전국 동네슈퍼 3만 곳에 공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소진공은 스쿼즈맥주, 한국수퍼마켓협 동조합연합회(한수연),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 하고 동네슈퍼 고객 유입을 확대해 골목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소진공은 가격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지원한다. 맥주 제조사인 스쿼즈는 '만땅맥주'를 6개월간 한정 생산·공급한다. 이와 함께 한수연과 마트협회, KVC는 전국 슈퍼마켓 유통체인망을 활용해 신속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한다.

만땅맥주는 우수한 양조기술과 생산역량을 갖춘 스쿼즈가 제조한 100% 라거 맥주로 뛰어난 품질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협·단체인간 공동협력과 소상공인 안주 상품 연계를 통해 생생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 상품이다.

/김승호 기자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넥서스, '윈스토어' 626억 인수... 게임 플랫폼 청사진 그린다

거래 마무리 시 지분율 89.03%
현 시장, 구글·애플 양분화 상태
블록체인·웹3 게임 핵심축으로
결제 인프라 활용 웹샵 사업 확대
대표게임·독점 콘텐츠 확보는 과제

넥서스가 SK스퀘어의 자회사인 토종 앱마켓 '윈스토어' 인수에 나서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넥서스가 단순 앱마켓 운영이 아닌 게임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서는 넥서스가 윈스토어를 기반으로 웹샵과 웹3 게임을 결합한 새로운 게임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넥서스는 최근 윈스토어 지분 84.63%를 약 62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넥서스의 윈스토어 지분율은 89.03%



장현국 넥서스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넥서스

로 확대된다. 기존 주요 주주였던 SK스퀘어와 네이버, 크래프톤 등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 형태로 남게 된다.

이번 거래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시도라기보다 게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 현재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와 네이버, 크래프톤 등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 형태로 남게 된다. 윈스토어는 국내 게임사와 통신사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확보해 왔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한계를 보였다.

장현국 넥서스 대표 역시 최근 언론 인

터뷰에서 "모바일에도 스팀과 같은 게임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윈스토어를 게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앱 유통 사업 확대가 아닌 플랫폼 사업 전환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넥서스가 강점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과 웹3 게임 사업이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넥서스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왔으며 윈스토어를 통해 게임 유통과 결제, 커뮤니티, 마케팅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웹샵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자가 게임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넥서스 역시 윈스토어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웹샵 사업을 확대하고 웹3 게임과 연계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중심의 앱마켓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게임 이용자와 개발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웹3 게임과 글로벌 게임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결국 콘텐츠다.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대표 게임과 독점 콘텐츠 확보 없이는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여기에 윈스토어의 수익성 개선 역시 숙제로 꼽힌다. 플랫폼 고도화와 마케팅 투자까지 고려하면 단기간 내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넥서스의 윈스토어 인수가 단순 앱마켓 인수가 아닌 게임 플랫폼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게임 유통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넥슨, 5년간 게임 스타트업에 2500억 투자

'코나 글로벌 IP 투자조합' 출범
시드부터 시리즈 A단계 게임사 대상
게임 IP에도 투자... 개방형 구조 채택

넥슨이 국내 게임 스타트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 최근 위축된 초기 게임 개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차세대 글로벌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다.

넥슨은 향후 5년간 총 2500억원 규모의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 대상은 시드(Seed)부터 시리즈A 단계의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다.

이를 위해 넥슨은 투자 전문 법인 넥슨파트너스를 설립하고 게임 전문 벤처캐피

털 코나벤처파트너스와 함께 1200억원 규모의 '코나 글로벌 IP 투자조합'을 출범했다. 해당 펀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모태펀드 자금 600억원이 포함돼 민관 협력 형태로 조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넥슨이 직접 퍼블리싱하지 않는 게임 IP에도 투자하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코나벤처파트너스가 모태펀드와 전략펀드를 활용해 초기 투자에 나서고, 넥슨은 약 1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투입해 후속 투자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넥슨은 AI 전환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다수의 신생 게임사가 등장했던 것처럼 AI 기술 확산과

정에서도 새로운 게임 IP와 콘텐츠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 IP는 물론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게임 개발사까지 포함된다. 넥슨은 '게임화된 AI'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영역에도 투자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넥슨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했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넥스엔파트너스센터(NPC)'의 철학을 계승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당시 사무공간과 법률 지원, 퍼블리싱 등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투자까지 확대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랩스, 로봇 두뇌 경량화 기술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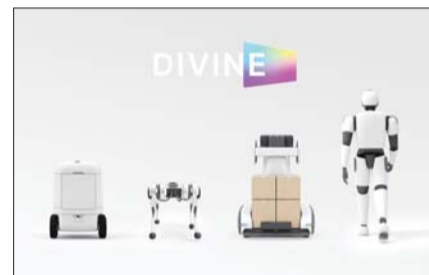
여러 전문 인코더, '디바인'에 담다

네이버랩스유럽이 자율주행 로봇의 인공지능(AI)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범용 인코더 '디바인(DIVINE)'을 23일 공개했다.

디바인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AI 인코더를 하나로 통합한 기술이다. 기존 로봇은 위치 추정, 깊이 계산, 공간 이해, 사람 인식 등 기능별로 별도의 인코더를 사용해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처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과 연산 부담이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네이버랩스유럽은 여러 전문 인코더의 핵심 기능을 하나의 모델에 담아내는 '다중교차 증류' 방식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지 이해, 공간 인식, 사람 인식 등 각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의 지식을 하나의 범용 인코더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로봇은 디바인 하나만으로



네이버랩스 유럽이 자율주행 로봇의 인공지능(AI)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범용 인코더 '디바인(DIVINE)'을 23일 공개했다.

/네이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인코더 여러 개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성능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네이버랩스유럽에 따르면 디바인을 적용한 결과 인코더 메모리 사용량은 기존 대비 약 90% 감소했다. 인코딩 처리 속도는 최대 12배 향상됐으며 전체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은 약 62% 줄었다. 시스템 처리 속도 역시 최대 4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네오위즈 '와인드 업 데드맨' 인디 신작 퍼블리싱

네오위즈는 국내 인디 개발사 세인넷츠 스튜디오와 신작 내러티브 CRPG(컴퓨터 롤플레잉 게임) '와인드 업 데드맨'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와인드 업 데드맨은 1980년대 카세트 테이프와 미래적 상상력을 결합한 카세트 퓨처리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바이오 재앙 이후 기억을 잃은 생존자들이 사막 위 컨테이너 타워에서 카세트 테이프 한 장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야기 담았다.

게임은 로봇에 영혼을 의탁한 주인공 '제퍼'가 잃어버린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카세트 테이프를 되감는다는 의미의 제목처럼 기억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서사가 특징이다. 픽셀 아트 그래픽을 적용해 레트로 감성도 더했다.

개발사 세인넷츠 스튜디오는 독창적인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국내 인디 게임사다. 대표작 '메트로 블로섬'은 2021 구글 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톱10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빛나 기자

카나나에 채팅·생활밀착·국민비서 기능 '쑥'

카카오, '공공AI 산업 박람회' 참가
5개 체험 공간으로 부스 구성

카카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공공 AI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자체 AI모델 '카나나'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공공 분야 AI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다. 카카오는 '카나나와의 하루'를 주제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선보인다.

부스는 총 5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 존에서는 대화 맥락 기반 브리핑 기능과 이용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안하는 선독 기능을 소개한다. 카나나 대화·통화 요약 존에서는 채팅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정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공간에서는 카카오톡의 서비스를 연결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선보인 'AI 국민비서' 체형존도 운영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공공시설 예약과



카카오 '2026 공공 AI 박람회' 부스 전경.

/카카오

전자증명서 발급, 기관 제출, 전자지갑 보관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추가된 음성 기반 서비스도 함께 소개한다.

부스에서는 카카오의 AI 안전성 기술인 카나나 세이프가드도 공개한다. 카나나 세이프가드는 유해 콘텐츠와 위험 요청을 탐지하는 AI 가드레일 모델로 한국어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를 활용한 포토부스도 운영한다. 관람객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썰리드를 생성해 '나만의 썰리드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AI와 정신건강 상담 연습하고 피드백까지"

이스트소프트·SKT·테라코랩스
AI 아바타, 전문인력 교육 영역 확장

이스트소프트와 SK텔레콤, 테라코랩스가 상담사 훈련을 돕는 인공지능(AI) 아바타 개발에 나선다. AI 아바타와 반복적으로 상담을 연습하고 상담 과정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교육용 AI 솔루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스트소프트는 SK텔레콤, 테라코랩스와 'AI 아바타 기반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코칭 솔루션' 공동 개발·사업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3사는 정신건강 분야 상담 수련생이 사람처럼 말하고 표정을 짓는 AI 아바타와 반복적으로 상담을 연습할 수 있는 교육용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상담 이후에는 상담 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맞춤형 지도도 제공한다.

이번 솔루션은 매장 안내나 고객 응대에 활용되던 AI 아바타를 전문인력 교육·훈련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사람을 만나기 전 다양한 상담 상황을 안전하게 연습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상담 수련생은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AI 아바타와 대화하며 상담 질문 방식과 감정 대응, 상담 흐름 운영 등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상담 반응이 적절했는지, 상담 목표와 전략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내담자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숙련 상담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한 AI 수퍼비저 아바타를 통한 맞춤형 지도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시각장애인과 바꾼 모바일앱… 장벽없는 모두의 투자로”

인터뷰 | 토스증권 **곽수정·황세원·김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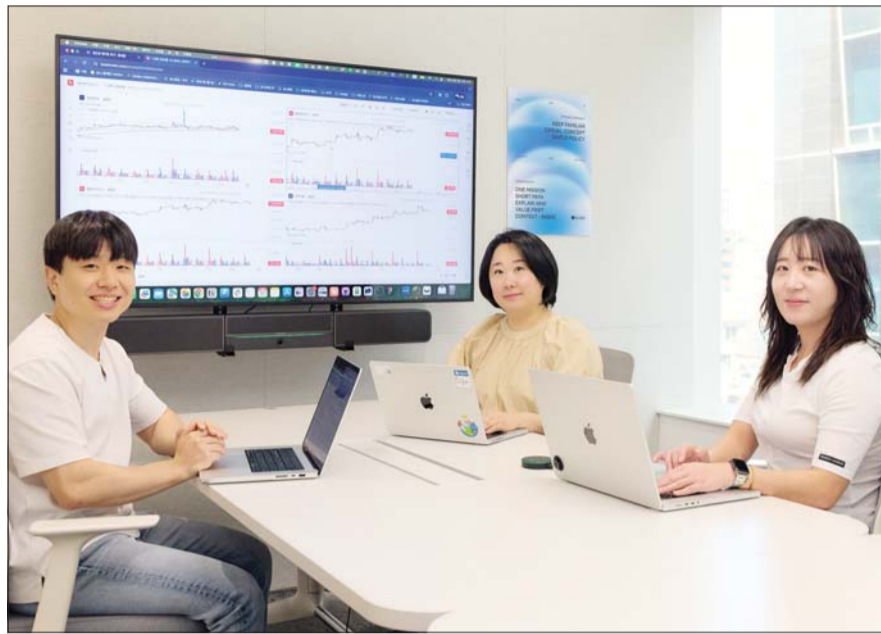
‘접근성 해커톤 프로젝트’ 진행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과정 살피고 서비스 전반 접근성 개선 작업 “모든 조직이 접근성 고민 목표”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 토스증권의 캐치프레이즈인 이 문구는 그동안 투자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토스증권이 진행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는 ‘모두’의 의미를 한층 넓혔다. 나이나 투자 경험을 넘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정보에 접근하고 같은 투자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시도다.

토스증권은 올해 3월부터 시각장애인 투자자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점검하는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 QA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과정을 관찰하고, 발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현장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접근성이 특정 이용자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서비스 전반의 설계 문제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어떻게 계좌를 만들었지?”…직접 보고 알게 된 투자의 장벽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시각장애인 투자자들이 이미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곽수정 QA 리드는 “처음에는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이용자가 계좌를 보유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계좌 개설 과정은 예상보다 높은 장벽이었다. 신분증 촬영과 본인 인증은 비장애인에겐 익숙한 절차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광 리드는 “계좌 개설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떻게 계좌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황세원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투자 판단의 핵심인 호기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비장애인 투자자는 매수·매도가격과 잔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지만 시각장애인 이용자에게는 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황 디자이너는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러지 못했다”며 “투자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고



(왼쪽부터)김원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곽수정 QA 리드, 황세원 프로젝트 디자이너 /토스증권

말했다. 커뮤니티 기능에서도 문제는 발견됐다. 게시글 제목을 읽을 수 있었지만 해당 글이 선택 가능한 메뉴인지 인지하지 못해 상세 화면이나 댓글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매매 화면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기 위해 키패드가 열려도 현재 입력 가능한 상태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에서 시작해 ‘모두를 위한 투자’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

는데 그치지 않았다. 토스증권은 체결강도와 매수·매도세를 요약해 전달하는 기능을 도입했고, 급변하는 호가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멈추거나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매 화면에서는 가격과 수량 입력 시 키패드로 자동 이동하도록 수정했으며 커뮤니티와 계좌개설 과정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더 큰 변화는 접근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 황 디자이너는 “그동안은 화면이 음성으로 어떻게 읽힐지까

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원호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증권 서비스는 실시간 정보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읽어주는 것을 넘어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F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닌 본업의 깊이를 더하는 활동으로 바라본다. 궁극적인 목표도 접근성 TF가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서비스 조직이 설계 단계부터 자연스럽게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광 리드는 “접근성을 위한 TF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모든 조직이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접근성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 투자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더 넓다. 고령층과 금융 초보자, 나이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선으로 시작된 실험은 결국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라는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급락… 서학개미 ‘거품 경고음’

해외주식 Click

16% 넘게 폭락, 제2페이스북 우려 과도한 AI 인프라 투자 경계론 커져

“스페이스X 거품이 벌써 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회사채 발행 소식에 하루 만에 16% 넘게 폭락할 줄은 몰랐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기업에 탑승한 서학개미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기업들이 추진하는 자금 조달과 인프라투자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특히 스페이스X를 두고 상장 직전 연도의 막대한 적자와 함께 실제 버는 돈에 비해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과거 페이스북 상장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장 초기에 주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맹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스페이스X 상장 이후부터 지난 22일까지 19억4960만달러(약 3조원)를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 시장 참여자들이 스페이스X에 자금을 투자하는 배경은 성장성도 있지만, 패시브 자금(지수 추종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 주목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상장 후 15거래일 뒤인 다음 달 6일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각종 지수 편입으로 총 162억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요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주목된다”면서도 “다만 스페이스X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가격 조정을 활용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화려한 데뷔 이면에는 지난 2012년 페이스북(현 메타) 상장 직후 주가가 반 토막 났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건설 등 AI 부문의 막대한 자본 지출로 49억3000만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낸 적자 기업이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소식지에서 “스페이스X는 연 매출이 2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작은 우주기업으로, 틈새 통신 기업이며, 골치 아픈 소셜미디어 기업이자, ‘코어워브’의 마이너 버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버리는 특히 워런 버핏이 이끈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교했을 때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비상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 공모가 135달러로 나스닥

에 상장한 이후 첫 거래일 19.22% 급등했다. 이어 15일 19.6%, 16일 4.83%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다. 17일 4.95%, 18일 3.56% 하락한 데 이어 22일에는 16.43% 급락하며 154.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학개미의 고민은 AI관련 기업에도 있다. 이달들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에 마이크론테크놀로지(8억6580만달러), 마블테크놀로지(5억3554만달러), 알파벳(2억4584만달러), 인텔(1억5243만달러) 등 반도체 및 AI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운영기업)들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현재의 AI 투자 열풍이 과거 닷컴버블과 유사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도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섰지만 결국 상당수가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허정윤 기자

박현주식 전략에 미래에셋 고액자산가 급증

30억 이상 고객 9500명 넘어서 성장주 중심 투자, 자산 증식 기여

박현주 GSO(글로벌전략가·사진)가 강조한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글로벌 투자 전략이 고액자산가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외 AI·반도체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3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고객 수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 수는 지난 5월 기준 95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3000명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월 대비 증가율도 26%를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 고객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한 증시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증가를 넘어 글로벌 투자 기회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찾는 고객 유입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외 성장주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내 주식 보유 상위 종목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산일전기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등 구조적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 보유 종목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K



하이닉스는 124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58%, 삼성전자는 495.9%, 산일전기는 26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GSO가 오랜 기간 강조해온 글로벌 자산배분과 미래 혁신산업 투자 철학이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액자산가 고객 기반 확대의 배경으로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도 꼽힌다.

최근 고액자산가 시장에서는 단순 투자 상품 판매를 넘어 세무와 부동산, 상속·증여, 기업승계, 자녀 교육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VIP 자산관리 브랜드 ‘세이지(Sage)’를 통해 기업 경영자와 전문직,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젊은 기업가와 차세대 리더를 위한 ‘세이지 비욘드’,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세이지 주니어’, 가문 단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 자산가 고객이 1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투자철학과 관리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고객의 성공이 기업의 성과라는 고객동맹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해진공,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 속도… 2231억 펀드 출범

블라인드 펀드, 존속 기간 15년
BNK부산·신한은행 공동 출자
NH농협은행과 해양 금융지원 협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200억 원대 규모의 국내 항만·물류인프라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또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 목적의 선박금융·신용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23일 해진공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는 해진공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특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상황에 맞춰 유망 사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진공의 지원은 그간 물류센터·항만 시설 등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금융 지원이 주를 이뤘다. 이번 펀드 출범을 계기로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하역설비 등 국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갖고 있다.

/해진공

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드 조성 규모는 총 2231억 원이다. 해진공이 최대 출자자이고 BNK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또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 공동 운용사를 맡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펀드의 존속 기간은 15년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축된 민간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해진공의 천용건 해양금융본부장은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는 국가 공급망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장기 투자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진공은 이번 펀드를 통해 국가 물류망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과 함께 미래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국가 물류망 안정성과 공급망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진공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

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19일에는 부산 해진공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해양산업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선박금융, 신용보증 지원 ▲해운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해양산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해진공 발행 채권 인수 등 3개 분야 중심의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해진공의 해양금융 전문성과 농협은행의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이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담보 부족이나 금융 정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변동과 해운시장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진공은 농협은행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가사노동 정점 37세→40세 늦춰졌다

혼인·출산 시기 늦춰진 영향
부담 연령대도 35~54세로 이동

이른바 '가사노동 생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나이는 4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혼인·출산 시기의 지연에 따라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 부담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5년 전에 비해 3년 늦춰졌다.

국가데이터저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이 40세에 187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에는 37세였으나 5년 사이 3년 밀렸다.

국민시간이전계정란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와 청소, 빨래, 자녀 돌봄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령별·성별로 분석한 통계를 말한다. 누가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누가 가사노동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가사노동 생산은 15세부터 증가해 30~40대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감소하다가 은퇴 후 가정관리 시간 증가와 손자녀 돌봄 등의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는 M



지난달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뉴시스

자형' 구조를 나타냈다.

아울러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시기 역시 이전과 비교해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 37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생산이 늘면서 28세에 흑자로 전환됐고 39세에 1035만 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82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개인이 받은 가사서비스 가치에서 직접 수행한 가사노동 가치를 뺀 금액이다.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적자로 본다.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기간은 남성이 32세부터 43세까지 12년이 었다. 2019년 8년보다 4년 늘었다. 여성은 26세부터 83세까지 58년이 었다.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연령대는 25~44세에서 35~54세로 이동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비중이 높은 35~44세 연령층은 66조3000억 원 규모의 가사노동 흑자를 기록했다. 이들이 생산한 가사노동은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가구 내 이전 형태로 유년층에 전달됐다. 유년층은 생산 없이 소비만 이뤄져 11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광, 30억 상생안으로 거래관행 개선

PB 협력사 최소 생산물량 보장
공정위원회 동의의결안 확정

쿠광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받는 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계약서에 최소 생산 물량과 관촉비 분담 비율을 명확히 보장받게 된다. 하도급업체에 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관촉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깎아 '갑질 논란'을 빚은 쿠광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쿠광과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장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광 측이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 상품 관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부담하게 인하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이에 쿠광 측은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인용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쿠광 측은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확실치 처리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협의를 통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제품 생산·입고 기간인 '리드타임'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단가 인하 압박의 통로가 됐던 관촉행사 시에도 수급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관촉추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쿠광 측은 또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업체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으로 10.5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출연연 연구자 강연료 상한 2.5배 인상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40만원서 100만원으로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들이 외부 강연이나 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이 현행 1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 대학교수 등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제기되어 온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임직원의 외부강연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임직원이다.

그동안 이들이 외부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1시간당 40만 원, 강의

가 길어져도 하루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수나 교사 등은 유사한 전문성을 지녔음에도 1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출연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심의 당시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연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과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전국 단위 농촌 일손지원 실시

약 1만8000여 명 참여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 '범농협 농촌 일손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시작된 지원은 25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전국 각지의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업체 봉사단 등 약 1만80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9일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강원 평창 대관령 소재 농가를 찾아, 무과작업·양상추 모종 심기 등 농작업 일손을 보탤다. 강 회장은 "6월은 '부지깎이

도 일어나 일손을 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들의 일손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며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이상 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범농협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영농인력공유를 공유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은퇴자와 전업주부 등 유유인력을 도시농협을 통해 모집·연계하는 '농협 도농인력 이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6시간 야외활동 후, 피부는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 더 우아한 선케어
골프, 여행 등 야외 활동을 위한 초슬림 투명 UV패치



세계 100대 골프 코스,
엄격한 제품 선별 기준의
해슬리 나인브릿지에
국내 유일 입점

- # UV-A 98% / UV-B 99% 차단
- # 광대까지 커버되는
88mm x 60mm 대형 패치
- # 접착제 없이 편안한 밀착
- # 자외선 차단 + 피부 보습 케어



Anano Inc. | 070-7773-9931 |

- 가양역_메가팜스 가양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금부빌딩 3층
- 을지로입구_명동퍼스트약국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14 눈스퀘어 1층 (T.02-3789-7277)
- 명동역_Hello K Beauty / WYNN (Currency Exchange, ATM, LUggage)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6길 6, 원스환전소 2-3층

- 양재역_메디피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42, 크리스탈빌딩 1층 (T.02-3463-1547)
- 신논현역_비비 약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urbanhive 지하 2층 (T.02-542-8559)
- 해슬리 나인브릿지 /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76 (T.031-887-9999)
- 제주 나인브릿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로 34-156 (T.064-793-9999)

부산시, 케냐 해양 콘퍼런스서 '스마트 양식' 공약 발표

내년까지 국립부경대에 센터 조성
전통양식 산업, 데이터·AI 전환
질병 예측·생산 최적화 지원

부산시가 케냐 몼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서 스마트 양식 분야 신규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6~18일 콘퍼런스에 참가해 해양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넓혔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회의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이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자발적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로, 2014년 출범 이후 누적 공약이 2900건을 넘었다.

이번 11차 회의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유산,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아프리카 카대륙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이 케냐 몼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인 '몼바사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18일 본회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세션에서 '스마트 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신규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다. 전통 양식 산업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해 질병 예측과 생산 최적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센터는 2027년까지 국립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조성된다.

부산시는 이번 콘퍼런스 참가를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위한 중

장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인프라,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도 참가해 부산 개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 해양 행사를 이어간다. 오는 9월 '동아시아해양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연례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해 아시아·태평양 연안도시와의 협력을 넓히고, 2027년에는 세계 항구도시협회(AIVP)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참가는 부산의 해양 정책과 실천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영일만항, 북극항로 추진 박차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경북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물류·항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에 대응해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산시 시군평가 시부 종합 1위

경산시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에 올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지표 480점 만점 중 475.4점을 획득해 9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산시 역대 최고 성적이다. 수상에 따라 사업비 1억5000만원과 포상금 2000만원도 확보했다.

특히 장기간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9개 지표를 새롭게 달성하며 평가 결과를 끌어올렸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도시 조성, 환경 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가 고르게 반영됐다. /경산(경북)=김진곤 기자

진주시 모바일 지역상품권 100억 발행

경남 진주시는 내달 1일부터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진주시사랑상품권' 10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모바일 진주시사랑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하면 된다. 관내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760억원 규모의 '진주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270억 원을 발행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49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히든챔피언 신규기업 3곳 선정

부산시가 올해 '부산형 히든챔피언' 신규 기업으로 테란, Mt.H콘트롤벨브, 푸드트레블 3개사를 선정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2일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이들 기업에 R&D·사업화·기술 고도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이다. 부산시는 그간 158개사를 육성해 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이차전지 제조현장 AX 확산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
에코프로비엠 등 5개 기업과 실증
차 부품, 반도체 등으로 확대 계획

경북도가 이차전지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안전관리 솔루션을 검증하고 제조업 AI 전환(AX) 확산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한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에코프로비엠, 아이에스에코솔루션, 애플러스, 아비코, 피앤티 등 5개 기업과 제조현장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들은 AI 영상분석 기반 위험 감지와 화재 예방, 공정물류 무인화, 자율 이동로봇(AMR) 운영 최적화, 로봇 통합 관제 등 물리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서 검증된 안전

관리, 공정물류 무인화, 로봇 통합관제 기술을 이차전지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공급기업 협력체계 구축과 후속 실증,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22일 경주 라한 셀렉트에서 '제조현장 물리인공지능 성과확산 포럼'을 열고 사업 성과와 AI 솔루션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자율제조 기술과 제조업 AI 활용 전략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도 진행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AI는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검증된 제조혁신 모델을 지역 기업에 확산해 제조업 AI 전환과 자율제조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달빛 아래서 경기전 역사 체험하세요"

전주시, '왕과의 산책' 운영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

전북 전주시 대표 야간 문화콘텐츠인 경기전 역사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이 올해도 관광객들을 맞는다.

시는 10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전주 경기전에서 야간 역사 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왕과의 산책'은 역사와 공연, 해설을 결합한 관객 참여형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만족도와 함께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주의 대표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은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배우 27명이 경기전 내 9개 주요 공간에 배치돼 경기전과 전주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참가자들은 경기전 입구를 시작으로



전주시 대표 야간문화콘텐츠 경기전 역사 탐방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홍살문과 정전, 전주사고, 예종대왕태실 및 비, 조경묘, 부속채 등을 차례로 이동하며 역사 속 인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경기전 해설을 넘어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서사 형식으로 풀어내 경기전의 역사적 가치와 전주의 도시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홍보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와 협력
32개국 주한외국인 100명 선발

부산관광공사가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100명과 손잡고 부산 관광 온라인 홍보에 나선다.

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Global Hiking Mate)'와 협력해 부산 여행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하이킹 메이트는 32개국에서 선발된 주한외국인 인플루언서 10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올해 2년 차를 맞았으며 참가자들의 SNS 팔로워 수 합계는 약 55만 명에 이른다.

주요 활동은 등산과 웰니스 관광, K컬처 등을 주제로 한국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에 알리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 서울 북한산 인근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협업에서 참가자들은 7월부터

10월 사이 개별 자유여행 형태로 부산을 방문한다. 공사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즈니스패스'와 교통, 숙박 등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부산의 주요 관광지 and 콘텐츠를 직접 체험한 뒤 개인 SNS 채널에 관련 콘텐츠를 올리게 된다. 공사는 우수 콘텐츠와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콘텐츠로는 올해 3월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등 부산의 산악 관광 자원을 활용한 등산 콘텐츠가 포함된다. 금정산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 접근이 가능해 외국인 개별 여행자의 접근성이 높다.

이 밖에 공사가 선정한 부산 웰니스 관광지 17곳 방문, 미식과 야간 관광 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부산과 서울 간 철도·항공·시외버스 등 교통 이용 정보, 부산 지역 축제·이벤트와 연계한 여행 콘텐츠도 제작·공유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전 돌입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삼아
우주항공청 소재 '강점'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지역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삼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전담 기관이다. 정책 개발, 사업 기획,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맡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공식화했고, 올해 2월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천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양상이 형성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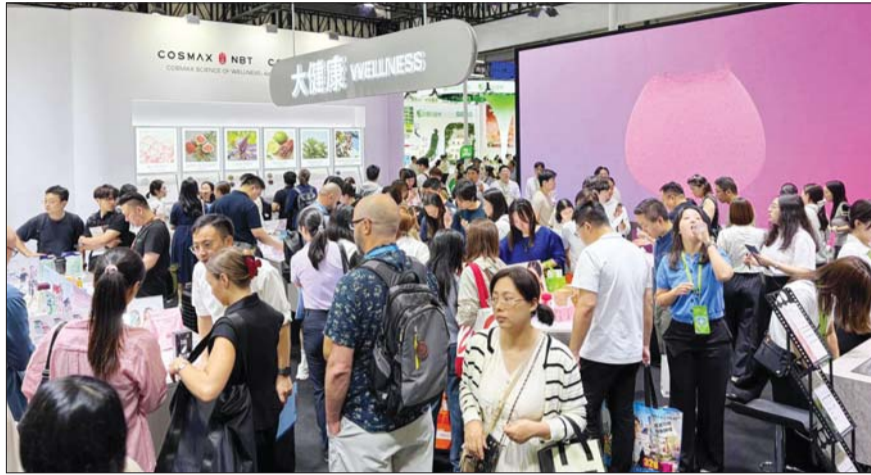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점을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제작, 시험, 정비(MRO)까지 항공 우주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시에 따르면 전국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52.4%, 종사자의 45.4%가 사천에 집중돼 있다. 정책 수립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산업 현장, 기업 지원 기능이 한 곳에 모여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사천 측의 논리다.

사천시는 지난 2월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이 서명운동은 참여 목표를 5만명으로 잡고 있으며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서명운동을 시민과 기업, 기관, 단체가 함께 하는 전 시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천(경남)=손봉호 기자 metrobusan5@

기술력 높이고 생산력 늘리고 K-건기식, 글로벌 영토 확장

콜마비엔에이치, 영업익 189% ↑
‘헤모힘’ 라인업 확장 등 성장 견인
코스맥스그룹, 호주·중서 성장세
‘HNC 2026’ 참가해 기술력 알려
노바렉스,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중 과징시장서 기업 입지 다져
내년 오송2공장 완공... 생산력 ↑



코스맥스그룹은 지난 15~17일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B2B 박람회 ‘HNC 2026’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개발(ODM) 업계가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한 첨단 제형 기술력을 선보이며 경쟁하고 있다. 업계 선두 주자인 콜마비엔에이치, 코스맥스그룹 등에 이어 후발 주자 노바렉스까지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웰니스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23일 국내 건강기능식품 ODM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엔에이치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69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224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내실 경영과 생산 최적화가 주효했다.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던 세종3공장 등의 가동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됐고 원가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성과다. 또 글로벌 메가 히트작인 ‘헤모힘’의 라인업 확장과 수익성이 높은 신규 해외 대형 거래선 확보가 맞물리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원료 및 제형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천연물 소재 연구 역량을 고도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맥스그룹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코스맥스엔비티는 1분기 93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29.2% 성장했고, 순이익은 91억원을 올렸다.

한국법인이 국내 신유통 채널 진입 가속화로 40.6% 성장한 가운데, 호주법인 또한 오더 흐름 회복세에 힘입어 82.1% 급증했다. 그룹 내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고 있는 코스맥스바이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 479억원이다. 순이익은 13억원이며 특히 중국 현지 프로모션에 적극 대응하며 흑자 기조를 공고히 했다.

코스맥스그룹은 이달 15~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건기식 박람회 ‘HNC 2026’에 대규모 공동 부스를 마련해 글로벌 바이어들과 적극 소통했다. 독자 개발 원료인 Re:PDRN, AGEs Blocker 등을 비롯해 목 넘김을 개선한 초소형 정제 기술 아담, 구강용해제형 스텝 등을 총망라해 선보였다.

아울러 이번 현장에서 코스맥스엔비티와 코스맥스바이오는 ‘스마트 제조 기술 혁신 선도 기업상’을 공동 수상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노바렉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208억원, 영업이익 141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2%, 영업이익은 68.0%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1.71%로 뛰었다.

이중 국내 매출은 30.4% 성장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신규 진

입하는 초기 사업자들을 정조준해 맞춤형 기획과 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 시장 역시 전년 대비 38.5% 증가한 435억원의 매출을 냈다.

특히 중국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과정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다졌다. 중국 대형 고객사들과 실시간 생방송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시장의 판도를 바꿀 ‘10대 제제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즉각 상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노바렉스는 생산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송2공장이 오는 2027년 완공되면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유통 업계는 “과거에는 좋은 원료를 캡슐에 담아내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제형 제제 기술은 물론 신유통 트렌드와 소비자 취향에 얼마나 민첩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부문 자체만 놓고 봐도 전 세계 웰니스 시장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수분 가득 ‘3C-히알루론산’ 여름철 피부 열감 낮추세요”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세럼·겔 마스크 제품 선보
같이 쓰면 수분 지속력 2.4배 ↑



프리메라 ‘3C-히알루론산’ 신제품 2종.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3C-히알루론산’ 제품군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여지는 제품들은 히알루론산과 3가지 핵심 성분인 카페인, 세라마이드, 사기를 복합 처방해,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갖췄다.

‘3C-히알루론산 하이드레이션 써지 세럼’은 피부 각질 20층을 관리할 수 있다. 피부 수분을 유지하면서 속건조를 개선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준다. 또 멘톨 성분 없이 수분만으로 냉각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 사용 직후 피부 온도는 6.6℃ 낮아졌다.

함께 출시되는 ‘3C-히알루론산 세럼 메가샷 겔 마스크’는 별도 지지체나 불순

물 없이 세럼 한 병을 그대로 굳혀 만든 겔 마스크이다.

특히 3C-히알루론산 세럼 사용 후 겔 마스크를 함께 사용할 경우, 마스크 단독 사용 대비 수분 지속력이 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며 “고기능성 세럼 제품들을 지속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의약외품 현장역량 강화

식약처와 ‘의약외품 GMP 세미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7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에서 ‘의약외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품질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의약품외품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공유해 실무에 필요한 요구 사항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GMP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의약외품 GMP 문서·기록 관리의 이해와 실무 ▲의약외품 GMP 제조관리 이해와 주요 고려사항 ▲의약외품 GMP 품질관리의 이해와 주요 고려사항 등 현장자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각 강연에서는 표준작업절차서(SOP) 관리, 제조·시험기록서 작성 및 관리, 시험검사 및 출하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외품 GMP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품질관리 체계”라며 “업계의 GMP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알에프바이오, 메디컬 에스테틱 경쟁력 알려

‘AMWC KOREA 2026’ 참가 성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알에프바이오가 19~2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AMWC KOREA 2026’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AMWC KOREA는 세계 미용의학 및 안티에이징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임상 트렌드와 시술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행사로, 올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알에프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내년 출시 예정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필러 (YOUTHFILL PN+)를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필러 (YOUTHFILL HA),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YOUTHFILL CA)와 화장품 등 핵심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부스방문객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메디컬 에스테틱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YOUTHFILL HA의 임상 활용 사례가 소개되며, 알에프바이오의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최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비수술적 시술, 피부 재생, 복합 시술 프로토콜



알에프바이오는 AMWC KOREA 2026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운영했다. 해외 의료진들이 HA 필러, PN 기반 제품, 스킨부스터 등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알에프바이오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AMWC KOREA 2026 역시 스킨부스터, 엑소솜, 콜라겐, 비수술적 미용의학, 병원 경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글로벌 미용의료 산업의 주요 흐름을 반영했다.

장동민 해외영업팀장은 “AMWC KOREA 2026은 한국 미용의료 산업의 위상과 알에프바이오의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제품 포트폴리오, 학술 교육,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의료진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연세대 디지털헬스 경쟁력 확보

동아에스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을 아우르는 통합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핵심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센터에서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활용 연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디지털 표현형 및 디지털 바이오 마커 연구 체계 구축, 의료 데이터의 임상적 가치 검증, 개인건강기록(PHR),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연계한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고셔병 적응증 희귀의약품 지정

YH35995, 유럽의약품청 ODD 받아
10년간 시장독점권 등 인센티브 제공

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YH35995’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고셔병 적응증에 대해 지난 19일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YH35995의 이번 EMA 지정은 앞서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획득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이어진 성과다.

EMA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개발 단계에서의 과학적 자문, 규제 절차 관련 수수료 감면, 시판허가 승인 시점부터 10년간 시장독점권 등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유럽은 미국(최대 7년)보다 긴 10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하며, 지정 시 EU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집중심사 절차를 통해 단일 허가를 추진할 수 있다.

고셔병은 GBA1 유전자 변이로 리소좀

효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지질의 일종인 글루코실세라미드(GL-1)가 여러 장기에 쌓이는 유전성 리소좀 축적 질환(LSD)이다. 간 및 비장 비대와 빈혈, 혈소판 감소, 골격계 이상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제3형 고셔병은 해당 증상을 표적으로 한 허가 치료제가 아직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YH35995는 유한양행이 2018년 GC녹십자와의 공동연구로 확보해 현재 단독 임상 개발 중인 경구용 저분자 글루코실세라미드 합성효소(GCS) 억제제로, GL-1 생성을 줄이는 기질감소치료(SRT) 계열 치료제다. 최대 특징은 우수한 혈액 뇌장벽(BBB) 투과력으로, 전임상 연구에서 혈장과 뇌 내 GL-1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가 도달하기 어려웠던 중추신경계까지 약효를 전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월 매출 추이
252,463,204원

평균 수익률
32.64%

잘되는 가게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매출 공개 · 수익률 공개 · 점주 인터뷰로 확인하는
으뜸스시의 경쟁력

전체 35개 매장 중 23개 역대 매출 기록

6/24 (수) 36호점,
으뜸스시 부산서면점 오픈!

1

역대 최대 매장 매출

2억 5천만 원대

사례

2

역대 최대 하루 매출

1,099만 원대

사례

3

역대 최대 수익률

32.64 %

사례

4

역대 최대 세전 이익

8,366 만원

사례

※ 실제 매장 사례 기준 / 지점 · 시기별 상이



왜 지금,
회전초밥인가?

외식업 내
낮은 경쟁 밀도



자동화
운영 시스템

자동화 기반으로
운영 부담 완화



초보 창업자도
가능

본사 교육 · 오픈 ·
사후 관리 체계 지원



서울 및 전국
상권 창업

생활권 중심
입지 상담



창업상담 1644-0622





LG U+, 6·25 참전유공자 지원... 500만원 전달
 LG유플러스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 5가구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주숙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강우신 LG유플러스 경남공공·기업고객팀 책임, 박은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왼쪽부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서 ESG 캠페인 전개
 롯데마트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베트남 하노이 일대에서 ESG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교육환경 개선,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플로깅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김범창 롯데마트·슈퍼 HR혁신부문장이 현지 아동들에게 점심 식사를 전달했다. /롯데쇼핑



한국벤처투자, 폴란드 PER 벤처스 업무협약
 한국벤처투자(KVIC)가 폴란드의 대표 벤처투자 정책기관인 PFR 벤처스와 양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왼쪽)가 로제리아 엘바네크 PER 벤처스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VIC

금호타이어 ‘옴니 링’ 레드닷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금호타이어는 23일 미래 모뎀형 타이어 ‘옴니 링’으로 ‘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옴니 링’은 미래 교통 시스템에 최적화된 모듈형 타이어다. 자유로운 다방향 이동을 구현해 미래 도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금호타이어 앞서 온·오프로드 겸용 타이어 ‘로드벤처 RT’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은바 있다. /양성운 기자

인사 ◆코리안리(승진) ◇임원 △상무 김준동 △상무대우 정우국

부음 ▲김재원(전 주식회사 하해 대표)씨 별세, 성연순씨 남편상, 김수민(플레이트 대표)·민정전(하해 책임)씨 부친상, 이동진(스마트로 재무실 과장)·나상준씨 장인상=23일 오전 2시 57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25일, 02-6986-4440 ▲이철형씨 별세, 정구순씨 남편상, 이건호(한국경제신문 경영지원실장·상무)·건구·건우씨 부친상, 이경아·박정자·김희진씨 시부상=23일 오전 6시 30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실, 발인=25일, 062-527-1000

최태원 “KFAS, AI시대 인재교류·협력 플랫폼 역할”

(SK그룹 회장·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KFAS 신진학자상’ 시상식 참여 “연결되고 협력할 때 더 큰 변화 이뤄”

최태원 SK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이사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인재 생태계 확보에 힘을 싣는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재단 빌딩에서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와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에게 “개인 한 명의 기여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결되고 협력할 때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KFAS 신진학자상 수상자 3명, 해외유학장학생 33명, 김유석 한국고등교육재단 대표, 재단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인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자신의 연구와 전문 분야에서 AI와 어떻게 협력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겸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빌딩에서 열린 신진학자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음수사원(飲水思源)의 마음으로 오늘의 성취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기회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며 “자신을 키워준 사회에 재능과 역량으로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달라, 재단은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FAS 신진학자상’은 박사학위 취

득 후 독립 연구자로 도약하는 초기 단계의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올해는 사회혁신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김진환 경희대의과대학교 수 ▲양재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최석영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3명이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연구지원금 등 총 4000만원이 주어진다. 재단은 세미나, 동료 연구 교류, 국내외 석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연구 성과가 사회적 변화와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4년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를 키운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그동안 세계 우수 대학의 박사 1000여명을 배출했다. 1998년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박사급 인재 양성을 넘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인재림(人材林)·문우림(文友林)’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KFAS 신진학자상’을 신설해 성장 생태계를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순차 지급

삼성닷컴서 신청... 9월 30일까지

23일 삼성전자가 ‘국민과 함께, 삼성 전자 감사 페스티벌’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시작하며 기업 성과의 사회 환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7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에서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여 고객들은 이르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고 고객 전원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에게는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 멤버십에 가입하고 구매 품목과 구매처, 모델코드, 시리얼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등록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주 후부터 ‘디지털온누리’ 앱에 제품 구매가의 2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

이순차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매 고객은 미리 모바일에서 ‘디지털온누리’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골목 소상공인 상점, 편의점 등 일상 곳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QR 결제’를 선택하고 가게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앱에 등록하면 별도의 바코드 생성 없이 결제 연동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잔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도 지원된다. 다만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총 33개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혜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상생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 국내외 예술기관 연구·전시 지원

‘현대 트랜스로컬’ 참여 기관 선정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예술 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에 참여할 신규 기관 4곳을 선정했다. 국내외 예술 기관 간 공동 연구와 전시를 지원하며 지역과 문화를 잇는 협업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교류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현대차는 23일 울산시립미술관과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ADMAF)이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의 신규 참여 기관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립미술관과 뉴 뮤지엄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협업한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씩 총 3회의 공동 전시를 기획할 예정이다. 첫 전시에는 싱가포르 출신 작가 호추니엔이 참여하며, 미디어 아트 신작을 오는 9월 24일 뉴 뮤지엄에서, 10월 22일 울산시립미술관에서 각각 공개한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과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이 예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년간 협력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AI와 기술 발전에 주목하는 작가 4개 팀을 초청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인공지능 대학교(MBZUAI)와 연계한 다학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7년과 2028년 아부다비와 서울에서 공동 기획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美 가든그로브시 ‘김기문 서클’ 새겼다

중기중앙회 도로명 사인물 전달식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도시 가든그로브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가든그로브시로부터 ‘김기문 서클(Kim Ki Mun Circle)’ 도로명 사인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로명 사인물 전달식은 김 회장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인물은 가든그로브 시장을 대신해 제니 리 국장이 전달했다. 제니 리 가든그로브시 국장은 “가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제니 리 가든그로브시 국장으로부터 ‘김기문 서클(Kim Ki Mun Circle)’ 도로명 사인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그로브시와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김기문 회장의 노력을 기리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를 담아 도로명 사인물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애경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네번째 인증... 향후 3년간 유효

애경산업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문화를 확산하며 임직원 전문성과 독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 인증이며 해당 인증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애경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발명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술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lee236@

GS더프레시, 가맹점 신규 지원책 도입

‘영업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GS더프레시는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영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영업 활성화 프로그램은 상권 변화, 경쟁점 출점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규모를 매일 60여 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관련 투자 예산도 지난해보다 25%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 가맹점 포상 제도 ▲횡령 보험 지원 등 가맹점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김서현 기자 seoh@

e-Topia
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kec.kea.kr

SETIC 2026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2026. 6. 24(수) - 26(금)

호텔 농심 (부산시 동래구)

멈추지 않는 **기술**,
확장되는 에너지의 **물결**



ETF란 이름이 가려버린 위험



정운영
금융인사이트

ETF는 오랫동안 '분산투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고, 시장의 장기 성장에 함께 참여하며,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는 ETF라는 이름 앞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인덱스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온 ETF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상품이다. 이름은 ETF이지만, 실제 구조는 특정 종목의 단기 방향에 크게 베팅하는 고위험 상품에 가깝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한때 매매 회전율이 200%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이 상품이 장기 자산형성 수단이라기보다 단기 매매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상품의 성공을 거래량이나 판매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첫 번째 위험은 '이름의 착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구나 아는 대표 기업이다. 소비자는 "좋은 기업 주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상품은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다르다. 특정 종목의 하루 가격 변동률을 두 배로 증폭시키는 구조다. 기초주식이 하루 10% 오르면 상품은 약 20%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하루 10% 떨어지면 손실도 약 20%로 커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장기적으로 기초주식 수익률의 두 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매일의 등락률'을 두 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 아니라,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의 수익률을 두 배로 만들어 주는 상품이 아니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첫날 주가가 10% 떨어지면 투자금은 90만 원이 된다. 다음 날 주가가 다시 10% 오르면 9만 원이 늘어나 99만 원이 된다. 이를 동안 주가는 크게 내려갔다 다시 올랐지만, 처음의 100만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같은 기간 2배 레버리지 ETF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상황은 더 다르다. 첫날 주가가 10% 떨어질 때 투자금은 약 20% 줄어 80만 원이 된다. 다음 날 주가가 10% 오르면 투자금은 약 20%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금액은 처음의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을 기준으

로 한 16만 원이다. 결국 계좌에는 96만 원이 남는다. 주식이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3만 원을 더 잃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지, 오늘의 가격 방향에 베팅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낫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을 믿는 투자자라면 현물 주식, 반도체 산업 ETF, 보다 분산된 지수형 상품이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물론 장점도 있다.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고, 투자 기간과 손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둔 투자자에게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생활비, 대출금, 전세자금, 노후자금 처럼 삶의 안전망과 연결된 돈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 레버리지 상품에 신용융자나 미수거래까지 더해지면 투자 실패는 곧 가계의 위기로 변질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소비자에게 한 번 더 경고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안 된다. 소비자가 실제 손실 가능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상품 판매와 거래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 /금융과평복네트웍 이사장

모차르트를 잃는 AI 강국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얼마 전 카페에서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네댓 명이 인공지능(AI)을 화제로 삼고 있었다. 챗GPT가 낫다, 제미니가 편하다, 중국 AI가 의외로 잘 만든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AI는 어느새 개발자나 대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사용하는 생활 도구가 됐다. 취재 현장에서 변화는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학벌을 보지 않겠다는 채용 기조를 내세웠다.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엔비디아 본사를 찾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을 때는 그가 먹던 치킨을 건너자 손을 뻗어 받

아가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AI는 반도체와 전력, 로봇, 의료, 국방까지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증기기관이 영국을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인터넷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었다. AI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좀처럼 오지 않을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AI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누군가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줄였다고 하면 "일할 시간에 탄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일 안 하고 주식만 했겠네"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물론 이런 모습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고, 중국 청년들은 '탕핑'과 '네이쥘인'이라는 말로 현실을 설명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

릴수록 남의 성공을 응원하는 여우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영화 《아마테우스》의 살리에리는 성실했고 무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모차르트라는 압도적인 재능을 마주한 순간부터는 스스로 더 나아질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모차르트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다. 젠슨 황이 건넨 치킨 한 조각에 손을 뻗는 사람들이 등장할 만큼 AI 열기는 뜨겁다. 하지만 정작 옆자리에서 그 기술로 한발 앞서간 사람에게는 박수보다 의심이 먼저 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우리는 모차르트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언젠가 나도 모차르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AI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그 믿음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흘려보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 (음 5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60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72년생** 오늘 하루는 대체로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84년생** 술자리를 조심하세요.
-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 50년생** 곤경에 빠질수록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으로 하세요. **62년생** 두 마리 토끼는 잡기 어렵습니다. **74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를 보셔야 합니다. **86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 51년생** 부지런히 뛰며 다녀다며 움직여야 합니다. **63년생** 한가지 일에 희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게 됩니다. **87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 52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4년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88년생** 모든 것이 길하고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 53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5년생**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77년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세요. **89년생** 시끄러운 곳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 55년생** 기분 좋은 여행을 떠나세요. **67년생** 동북방이 길방이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반성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 56년생**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조심하세요. **68년생**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80년생** 사업확장은 당분간 금물입니다. **92년생** 친구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걸지 마세요.
- 57년생** 귀인은 이미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69년생** 오늘은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81년생**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조심하세요. **93년생** 돈대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 5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선의의 모습입니다. **70년생**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8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94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김상회의 四季 치원작월

'치원작월(馳遠捉月)'이란 어리석은 원숭이가 달을 잡는다는 뜻으로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자성이 중국 역사와 관련하여 유래된 것이 많지만 이 사자성은 각별히 불교설화와 관련이 있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4대 율장 중 하나인 '마하승기율'에서 유래하는데, 옛날 인도의 가시(伽尸)국 파라나(波羅羅)성 근처 숲에 살던 오백 마리 원숭이 떼 이야기다. 어느 보름날 밤 원숭이들이 연못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하늘에 있어야 할 달이 연못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원숭이들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연못 물에 비추는 것으로 생각지를 못하고 달이 연못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하늘의 달이 또 연못에 빠지게 되면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은 무서운 것이니 달이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건져내기로 한다. 그러자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묘안을 낸 것이, 나무에 올라가 연못가로 늘어진 나뭇가지를 잡고서 이어 매달려 달을 물속에서 건져 올리기로 한다. 하지만 원숭이 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원숭이들은 모두 연못에 빠져 수장되었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바로 치원작월이다. 후에는 이들 500마리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으로 환생하여 오백 나한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설화의 사실 여부는 그렇다 치고 원숭이들이 나무에 매달려 달을 건지려는 불교 설화의 내용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이 한국에도 있는데, 울산시에 있는 가지산 석남사의 극락전 벽에 이 모습이 보인다. 석남사는 신라 헌덕왕 때 도의(道義)선사가 호국 기도 도량으로 창건한 선찰(禪刹)이니 이미 천년을 넘은 세월 속에 중생들이 무지하고 무모함을 경계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경계한 무지와 무명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교훈이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		6				4	2
7	6			1		9	3
	1						8
			7	3	9		
	3		5		6		9
			1	8	4		
2							7
	7	1		4			8
8	4					7	3

5	4			3	6	9	2
	2			5			6
1			4				
4						1	
3	8						5
			2				7
					8		
9	3			1			7
2		6	5	7			9

8	1	2	6	9	9	7	8
9	8	2	7	4	1	2	6
7	2	1	9	8	6	2	1
6	2	8	7	8	1	2	9
2	6	8	9	2	7	4	1
1	9	7	6	2	1	8	2
8	9	9	1	2	7	6	1
6	9	2	7	9	1	6	2
2	7	1	2	9	6	9	8

8	6	7	4	2	9	9	1
7	2	9	2	1	8	9	6
1	2	8	8	9	6	7	2
2	7	9	1	8	4	2	6
6	9	2	7	9	1	8	4
9	8	1	9	6	2	6	2
9	1	8	6	2	7	1	9
6	9	2	7	9	1	6	2
2	1	6	9	4	2	8	7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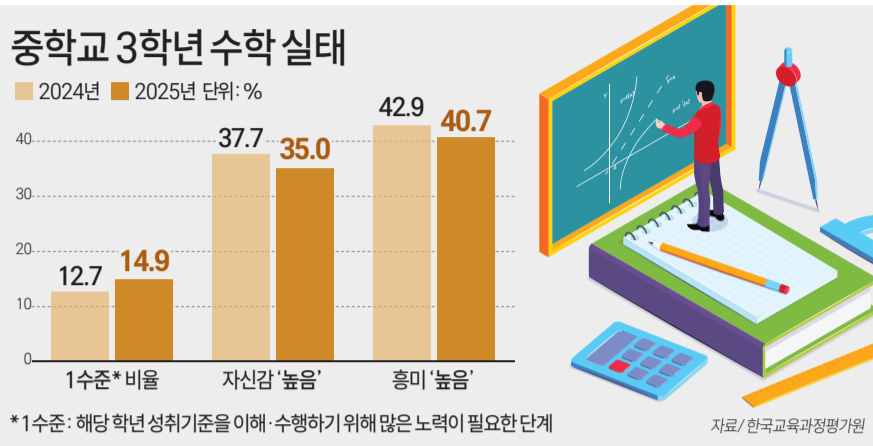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중3 수학 '노력 필요' 학생 늘었다... 기초학력 '경고등'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취약 학생 비율 14.9% 수학 자신감·흥미도 동반 하락

중학교 3학년 수학에서 기초학력 취약 학생 비율이 1년 새 100명 중 13명꼴에서 15명꼴로 늘었다. 전체 학업성취도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교 수학 하위권 확대와 수학 자신감·흥미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학습 결손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학이 이전 단계 학습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교과인 만큼, 초등 단계부터 결손을 확인하고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미달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중3 수학 '노력 필요' 단계 증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수학 1수준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전년(12.7%)보다 2.2%p 포인트(p) 오른 수치다. 평가는 학업성취도를



1~4수준으로 나눠 산출한다. 4수준은 해당 학년 성취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3수준은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다. 2수준은 성취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수준이며, 1수준은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중3 수학 1수준 비율은 ▲2023년 13.0% ▲2024년 12.7% ▲2025년 14.9%의 흐름을 보였다. 100명 중 13명 수준이

전년(23.9%)보다 2.0%p 높아졌다. 수학 흥미도 낮아졌다. 중3 수학 흥미 '높음' 비율은 40.7%로 전년(42.9%)보다 2.2%p 낮아졌고, 흥미 '낮음' 비율은 24.5%로 전년(22.5%)보다 2.0%p 높아졌다. 수학의 가치가 '낮음'이라는 응답도 16.1%로 전년(14.0%)보다 2.1%p 늘었다.
학교생활과 자기조절학습 지표도 낮아졌다. 중학교 수업 준비 및 참여도 '높음' 비율은 39.4%로 전년(41.7%)보다 2.3%p 낮아졌다. 중학교 학업적 자기효능감 '높음' 비율은 52.9%로 전년(55.4%)보다 2.5%p 낮아졌고, 고등학교는 59.1%로 전년(62.9%)보다 3.8%p 낮아졌다.
◆ **"초등부터 결손 확인해야"**
중3 수학 하위권 확대는 중학교 이전 단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뤄져야 중학교 수학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 단계부터 학생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험은 단순히 줄을 세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해도를 파악하고, 배운 내용을 다시 꺼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미달은 구분해야 한다"며 "기초가 부족하지만 교실 안에서 집중 지원을 받으면 따라갈 수 있는 학생과, 학습장애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단계부터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부진 학생은 교실 안에서 집중 지원하며, 미달 학생은 전문적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교생이 푼 블랙홀 난제... SCI 학술지 게재

서울과학고 학생 3명·권용준 교사 중력장 방정식 열역학 제1법칙 도출
고등학생들이 교내 연구 활동을 통해 물리 분야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대학이나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실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지도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들과 권용준 물리교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이 SCI 국제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모던 피직스 디(Interna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D)'에 게재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장방정식에서 도출한 제약 조건 없는 블랙홀 열역학 정식화(A Constraint-Free Formulation of Black Hole Thermodynamics from the Field

Equations)'다. 공동저자는 배이진, 안건우, 장근영 학생이며, 교신저자는 권용준 교사다. 학생들은 2026년 2월 서울과학고를 졸업했다.
이번 연구는 블랙홀 열역학과 중력장 방정식의 관계를 다뤘다. 블랙홀이 열역학 제1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중력장 방정식에서 직접 유도하려는 시도는 물리학적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
서울과학고는 이번 연구가 교내 정규 교육과정과 연구 활동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R&E(Research & Education), 졸업논문, 창의융합특강 수업 등을 거쳐 연구 주제를 발전시켰고, 교내 박사급 교원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완성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연구가 서울과학고 학

서울시, 마약류 관리 위반 15곳 적발

에토미데이트 취급기관 77곳 점검
서울시가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한 의료기관 77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대체제로 불법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난 2월 행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에토미데이트 공급이력 있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저검 인력 50여 명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실제 재고량과 NIMS상 재고량 일치 여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보관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15개 의료기관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은 4건, 실제 재고량과 시스템상 재고량 불일치는 1건이었다.
서울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경고, 과태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재고량과 NIMS상 재고량이 맞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달 행정개편 맞춰 우편번호 체계 손질

영종·검단구 새 번호 부여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7월 1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부터 도입된 5자리 우편번호의 바탕이 된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보다 작은 크기로 국토를 세분화한 행정 단위다. 인천시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 각 자치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우정사업본부, 물류업계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행안부에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아 확정했다.
인천시는 개편에 따른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부여해 사용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변경 정보는 주소정보누리집내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에서 누구나 상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변경 전후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우편번호 변경여부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체국, 소방서, 관세청을 비롯한 필수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원활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국가기초구역 정비만은 단순히 구역을 나누는 것을 넘어, 새롭게 출범하는 인천의 행정체제가 혼선 없이 시민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주소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짐 / 19:57

6월 24일(수) | 음력 : 5월 10일

수도권 날씨 19~29°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5/29, 동두천 15/28, 가평 14/27, 파주 15/28, 서울 19/29, 양평 16/28, 수원 18/28, 용인 18/28, 평택 17/28, 백령도 18/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 관영매체, 美 기업 제재... "대만에 무기 판매한 기업들"
▲미국 트럼프, 콜롬비아 대선 승리 우파 후보에 "강력한 관계 구축하자" /사진 뉴시스

▲中 왕이, 이란 고위당국자와 회담... "미·이란 종전 MOU 이행 지지"
▲종전 MOU 체결했지만... 미국인 69% "이란 핵 위협 안 없어져"

▲이란銀 총재 "해제될 동결자산, '美 농산물' 구매 의무는 없다"
▲푸틴·루카센코, 곧 '젤렌스키 최후통첩' 대응 논의



커피·탄산 대신 tea
대세로 떠오른
라이트 드링크
니



Life

K-건기식
기술력·생산력 ↑
글로벌 영토 확장
L2



“시험법 패러다임 전환... ‘K-NAMs’ 표준화로 주도권 잡는다”

〈한국판 첨단대체시험법〉

속깊은 인터뷰

이경륜

생명연 국가 첨단대체시험팀 팀장

한국판 첨단대체시험법(NAMs)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된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을 아우르는 시험법의 패러다임 전환에 뛰어든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NAMs의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앞에서 ‘동물실험’이 무력해진 이유가 컸다. 미국은 1700억원이라는 메가 투자를 단행하며 NAMs 개발에 나섰다, 유럽은 6월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지난 2월 ‘국가 첨단대체시험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국내에서 연구기관이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시도다.

국가 첨단대체시험팀의 첫 수장을 맡은 생명연 이경륜 박사를 생명연 충청북도 오창 본원에서 만났다. 그는 인터뷰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다고 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잘못된 전제였다.

이경륜 팀장은 “첨단대체시험법은 단순히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동물 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것이 NAMs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이 이끄는 생명연 첨단대체시험팀은 이제 K-NAMs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뗀다. NAMs의 표준화를 먼저 달성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다.

-첨단대체시험법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동물대체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NAMs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범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NAMs의 기본 목적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첨단대체시험팀의 첫 수장을 맡은 이경륜 팀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한국판 첨단대체시험법 개발 본격 시동 동물실험 대체 넘어 새로운 시험법 목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맞춤형 접근법 필요 오가노이드·생체조직칩·인공지능 ‘핵심’

새로운 시험법을 찾는데 있다. 최근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다. 기존 저분자 합성 의약품은 동물에서 나온 결과가 사람에도 비교적 잘 적용이 된 반면, 유전자 치료제는 독성이나 유효성을 동물에서 시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 Methodologies·NAMs)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움직임은 어떤가.

“미국은 2022년 말 통과된 ‘FDA 현대화법 2.0(Modernization Act 2.0)’을 기점으로 신약 허가 과정에 필수적이던 동물실험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2025년 4월 로드맵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올해 3월엔 신약 개발 시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생체조직칩(Organ-on-a-Chip), 인공지능(AI) 기반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NAMs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 6월 1일 화학물질 및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공식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동물실험 대신 이러한 첨단대체시험법을 활용한 독성 자료나 유효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NAMs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된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어떤 것들인가.

“오가노이드와 생체조직칩, 그리고 인공지능(AI) 컴퓨터 모델링이 첨단대체시험법의 핵심 세가지다.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로 만들어낸 3차원 ‘작은 장기 모델’을 뜻하는

오가노이드가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체 조직칩은 플라스틱 소재인 칩에 간, 폐, 심장, 피부 등의 세포를 키우고, 그 위에 약물이 섞인 배양액을 흘려보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독성이나 효능을 평가한다. 컴퓨터 모델링은 이러한 오가노이드나 생체조직칩에서 나온 데이터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를 수학적 모델을 활용해 미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위해 만든 기관 ARPA-H(보건첨단연구계획국)는 이미 지난 2024년 NAMs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오가노이드는 물론, AI와 컴퓨터 기반 약물 반응 예측 등에 투자하는 금액은 최대 1억2500만 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ARPA-H는 NAMs를 단순히 ‘동물 보호용 연구’가 아니라, 인류의 신약 개발 속도를 10배 이상 끌어올릴 핵심 혁신 플랫폼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각은 여전히 동물대체시험에 국한돼 있고, NAMs를 둘러싼 부처 간의 주도권 갈등만 수년째 이어져 오는 모양새다. 이경륜 팀장은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동물대체’를 내세우는 이유는.

“감성적인 접근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닌 생각한다. 어려운 첨단대체시험법 대신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면 여론의 주목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주도 하에 현실적인 K-NAM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NAMs 개발은 왜 중요한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생체조직칩, 오가노이드를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현성, 정확성을 따져서 이 모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표준시험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잡는다.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다. 이미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첨단대체 시험법에 대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리 쌓고, 이를 근거로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NAMs라는 용어도 미국이 만든 걸 그대로 쓰고 있지 않다. 더 늦어지면 FDA나 EMA가 만들어놓은 표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美·유럽, 규제 철폐 속 가이드라인 제시 글로벌 선점 위해 빠른 데이터 확보 관련 표준화 먼저 달성한 국가, 주도권 잡을 것 과학연구 넘어 정책·규제 함께 움직여야

-한국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NAMs는 과학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과 규제가 함께 가야한다. 연구자에게 맡겨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규제 기관이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첨단대체시험법 사용에 우선 혜택을 준다면,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위해 어떻게든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첨단대체시험법이 활성화 되고,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NAMs에 대한 국내 데이터를 빠르게 쌓을 수 있다.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규제기관, 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경륜 팀장은 약물동태학(PK) 전문가다. PK는 말 그대로 ‘몸이 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ARPA-H가 투자를 결정할 것 역시 NAMs 기술을 활용해 동물 대신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동태학을 예측하려는 연구다. 이 팀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첨단대체시험팀을 통해 K-NAMs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국가첨단대체시험팀은 어떤 활동 하게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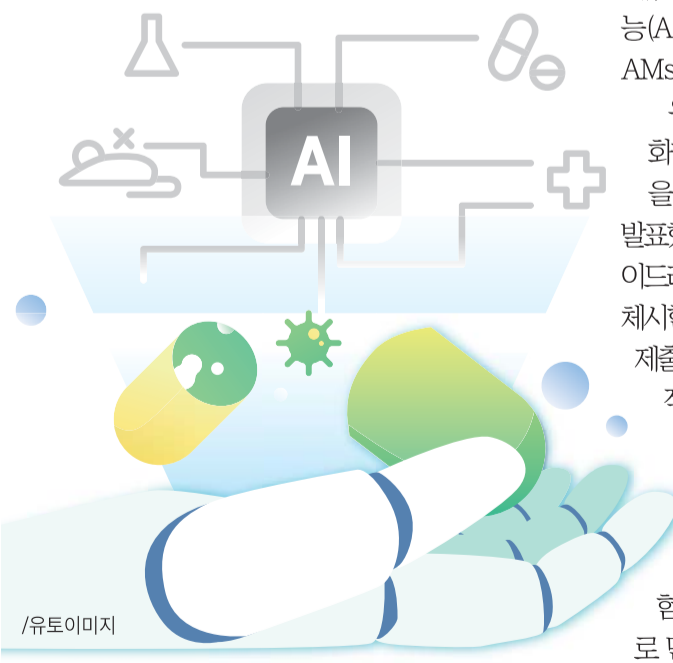
“우리 팀은 그동안 축적해 온 컴퓨터 모델링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 시험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할 계획이다. 첨단대체시험법은 기존 동물실험보다 인체 예측 정확도가 높은 반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고도화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통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하는 데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NAMs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기초 단계에서 기업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첨단대체시험법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면 기업들이 기술을 영위해서 임상수탁기관(CRO)를 만들고 투자하고 산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K-NAMs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그 시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 출연연인 생명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국가첨단대체시험팀은 앞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표준화된 시험법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신약을 개발할 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주고, 표준화를 통해 그 시험법이 허가 기관까지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도이미지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빗장 걸고 ‘체감기온 40도 폭염’ 속
전술 훈련
▲남아공 황인범 ‘모코에나’ 경고 누적 한국전 결
장...대체자 ‘스페펠로 시틀레’ /사진 뉴스스

▲‘월드컵 최다골 단독 1위’ 메시, 6번의 월드컵
통해 ‘새 역사’
▲펜싱 남자 사브르,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정상...
여자 플리레는銅

▲오타니, 데뷔 첫 MLB 올스타 최다득표 보인다
...김혜성 4위·이정후 19위
▲여자 PGA 챔피언십, 총상금 ‘199억원’ 女골프
역대 최다